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새해 금융 목표, **뱅크오브호프**와 설계하세요!
FDIC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음주운전 이민자 추방안 하원 통과

비시민권자 대상 입국도 불허
영주권 대기자도 영향 미칠 듯



연방하원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비시민권자의 입국을 막거나 추방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 연방하원은 ‘음주운전으로부터의 지역사회 보호법’(HR6976)을 찬성 274,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망명신청자·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인 민주당 의원 150명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긴 했지만,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도 59명이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엘살바도르 출신 망명신청자가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모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발의됐다. 음주운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호세 과달루페(37)는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전에도 네 번이나 추방됐지만 결국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법안을 발의한 배리 무어(공화·앨라배마) 연방하원의원은 “전국에서 45분마다 한 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 문제는 심각하다”며 이 법안이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신청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만들 뿐 아니라, 이들이 다시 미국 국경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사고를 냈을 경우 추방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민법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방 조치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이민법을 개정, 입국 불가와 추방 조치 사유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이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또한 ‘음주운전이 주법 등 로컬법에 따라 경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의회 매체 더 힐(The Hill)은 “이번 법안은 망명신청자 사고로 인해 발의된 법이긴 하지만, 이미 미국에 거주하며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트럼프, 부통령 후보감으로 팀 스콧 의원·놈 주지사 거론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4일 부통령 후보로 흑인인 팀 스콧 상원의원과, 여성인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언급하고 나섰다.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흑인 혹은 여성 러닝메이트설에 힘을 실는 발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포क्स뉴스와 인터뷰에서 부통령 후보와 관련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공화당 내부에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많으며, 당분간은 아니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후보 결정 기준에 대해선 “언제나 한 가지, ‘누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인가’이다”라며 “당신이 누구든 비상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유고시 권한 승계 서열 1순

위가 부통령임을 상기한 것이다. 그는 이어 스콧 상원의원과 최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에게 ‘당신은 나에게 훨씬 좋은 후보다, 당신 스스로에게보다’라고 말했다”며 “그는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저 자세였다. 그러나 그는 나를 위해서는 마치 호랑이처럼 강력하게 싸우고 비호했다”고 평가했다.

스콧 의원은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지난해 연말 사퇴한 뒤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주요 행사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동해 강성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여성인 놈 주지사도 거론하며 “그녀 역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싸우고 있다”며 놈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며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 8면 ‘트럼프’ 로 계속



한국, 올 입시 의대정원 1700여명 늘린다

정부, 이번 주 의대 정원확대 발표
당초보다 인원 늘어 의협 반발 예고

2025학년도 1500~2000명을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1000명 내외 정도에서 증원을 시작한다고 알려졌지만 첫해부터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7-8일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표에 앞서 7일 대한의

사협회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연다. 이후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안을 심의·의결한 뒤 발표한다. 정부는 증원 규모와 방법을 합구하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챙기고 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 일부만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확대 방안의 기준은 2035년 의사 수급 균형이다. 조 장관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의료개혁 민생토

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35년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2025~2029년 정원 확대가 핵심이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5년간 1만5000명을 확보하려면 첫해에 1000명 정도 늘려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1500~2000명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1700~1800명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 4면 ‘의대정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라운드 호그 데이 지난 2일 펜실베이니아 고블러스 놈에서 진행된 그라운드호그 데이 기념행사에서 올해 겨울이 6주 안에 끝나고 봄이 온다는 예측이 나왔다. 그라운드호그 데이는 1887년 시작된 행사로 겨울잠 자는 설치류 그라운드호그가 굴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지 여부에 봄의 시작을 예측한다. ▶ 관계기사 5면 [로이터]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예기 물품지킴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공천 경쟁률 3.4대1... 강남·영남 도전 '용핵관' 이 뇌관

(대통령실·내각 출신 인사)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858명 신청
핵심기반 영남 경쟁률 가장 높아
"용산, OO는 무조건 공천" 소문도
컷오프 댄 윤·한 갈등 재점화 가능성

국민의힘 4·10 총선 지역구 공천에 858명이 신청해 경쟁률은 평균 3.39대 1을 기록했다. 253개 지역구 중 핵심 지지기반인 영남권 65개 지역구에 278명이 공천을 신청해 경쟁률(4.28대 1)이 가장 높았다.

당내에선 공천 작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긴장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이나 내각에서 근무하다 총선에 도전한 친윤계, 이른바 '용핵관' 인사 상당수가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인 곳, 그 중에서도 영남과 서울 강남 등 여권 강세 지역에 도전장을 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검사 출신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다. 이 전 비서관

은 박진(4선) 전 외교부 장관 지역구인 강남을에 공천 신청을 했다. 여권 사정에 밝은 인사는 "이 전 비서관은 공천 뇌관 중에서도 뇌관"이라며 "공천 신청 전부터 이 전 비서관이 어디에 출마할지를 놓고 용산과 당의 의견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의 경우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서병수(5선) 의원이 있는 진갑에, 대선 때 윤 대통령의 청년 참모로 활동한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전봉민(초선) 의원이 있는 수영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역인 하태경 의원의 서울 출마로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큰 해운대갑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신청했다.

경향 지역 상당수는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가리겠다는 게 공관위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선 "용산에선 OO는 무조건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더라" "공관위에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은 3일 '김포-서울 통합 여권 시민대회'에서 서형배 김포검단연대 위원장으로부터 메시지 상자를 받았다. [뉴시스]

각각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더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위원장은 4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공천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간 갈등의 고리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는 질문에 "용산 공천이니, 윤심(尹心) 공천이니 폄훼하려고 하는 지적"이라며 "대통령이 당 공천에 구체적으로 관여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공천 작업이 본격화하는 국면 속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08석에 달하는 서울(49석)-경기(59석)를 잡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일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 시민대회에 참석해 "경기 '동료시민'들이 원하는대로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주민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했다. 여권이 추진해왔던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이다 그동안 야권이 주도권을 잡고 진행해 오던 경기 분도를 병행해 경기 표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과열 양상을 보인 일부 수도권 '스윙(Swing-경합)' 선거구는 지도부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했다. 이용호·조정훈·최승재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 등이 출마해 4파전 양상이던 서울 마포갑은 이 의원이 서대문갑으로, 최 의원은 경기 광명갑으로 출마지를 옮겼다. 요지로 꼽히는 한강벨트의 경우 김민석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영등포을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도전장을 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중-성동을은 하태경 의원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해훈 전 의원까지 3파전이 됐다. 중-성동갑 지역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항마로 한 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을 부각하고 있다. 전민구·김효성 기자

이번주 현역 30명 사실상 컷오프... 비명·친문 폭발전야

민주당, 공천 내분 본격화 가능성

"소리 없는 총성이 곧 울릴 것이다." 4일 익명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의 말이다. 지난주 4·10 총선 예비 후보 면접심사에 돌입한 민주당은 '1차 경선 지역 후보 발표(6일)→경선투표(19~21일)→경선 결과 확정(2월 말)' 등의 일정을 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가 시작되면 해당 의원들의 반발로 공천을 둘러싼 내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얘기가.

하위 20%에 해당하면 경선 득표율에서 20%가 깎이고, 하위 10%는 30%가 깎여 사실상 공천 배제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30여 명 선인 하위 20% 이하 명단에 친문·비명계 의원이 얼마나 포함될지가 관건이다. 최근 비명계 의원 다수가 포함된 출처 불명의 지라시가 돌아 지도부가 즉시 "가짜뉴스"라고 수습에 나선 일도 있었다. 야권 관계자는 "친문·비명계에 공천 확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4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피습 상처를 보여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면 탈당 움직임이 역대급으로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친명계 인사들이 친문계 현역 지역구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면서 양측 간 감정의 골이 팽 대로 패었다. 4선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는 초선 이동주(비례) 의원이, 초선 양기대 의원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는 초선 양이원영(비례)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를 선언했던 이수진(비례) 의원은 돌연 윤영

찬 의원 지역구(경기 성남 중원)로 방향을 틀며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외에도 재선 강병원 의원의 서울 은평을에 김우영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3선 전해철 의원의 경기 안산 상록갑에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재선 신동근 의원의 인천 서울에는 모경중 전 당 대표실 차장 등 원외 친명 인사들이 맞붙을 났다.

공천 현장에서는 '친명계 vs 비명계'의 갈등 구도도 가시화했다. 최근 공천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면접장에서 벌어진 장면이 대표적이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재선 박용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면접장에서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이 "(강북을에)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함께 있던 박 의원이 "(정 전 의원 발언은) 이미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하는 등 긴장감이 흘렀다는 후문이다. 최근엔 친문계 핵심인 임종석 전 대

통령비서실장의 거취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에 출사표를 냈는데, 이 지역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되면서 당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될 거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때부터 친문계가 "임 전 실장에게 경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자 "물러서는 게 맞다"(1월 20일, 윤용조 전 당 대표실 부국장), "척고대 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 정치적 양심을 보이라"(1월 23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반박이 이어졌다. 친문계 인사는 "임 전 실장 거취가 총선 전 계파 갈등이 증폭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열 양상은 공천 윤곽이 잡힐수록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선거제에 대한 당 지도부 기류가 병립형 비례제 회귀로 기운 뒤 '탈당 리스크를 줄이려는 조치 아니냐'는 비명계의 우려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병립형은 현행 준연동형과 달리 거대 양당에 유리한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병립형이 시행되면 신당 등 제3지대의 파괴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손국희 기자

워싱턴 날씨 (°F)

6일(화)	47~30	9일(금)	58~44
7일(수)	49~31	10일(토)	65~42
8일(목)	55~35	11일(일)	60~42

2월 5일(월) 52~3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메디케이드 (QMB 또는 CCC) + 메디케어 이신 분들 상담환영! (버지니아 지역)

메디케어

1959년생이신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신청

무료 상담

FIRST SENIOR SERVICE LLC.
To speak with a licensed agent
703-256-0300

AM 1310
매주 월
오후 1시 방송

- 메디케어 신청
- 어드밴티지 보험
- 처방약 보험
-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 메디케이드+메디케어

김남수 Licensed Broker in VA, MD, DC, GA, NJ

*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Any information we provide is limited to those plans we offer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https://www.medicare.gov) or 1-800-MEDICARE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 For accommodation of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please call <703-256-0300>/TTY:711.

버지니아 (VA) 7535 Little River Tnpk., #325D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메릴랜드(MD) 8600 Snowden River Parkway Ste 300 Columbia, MD 21045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CPA)

“엄마들이 보여준 작은 사랑의 기적”

글로벌 어린이재단
25년간 550만달러 후원

글로벌어린이재단(회장 이이미, 이하 GCF) 워싱턴DC지부는 3일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소재 레저월드 클럽하우스에서 ‘감사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GCF는 세계 각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가난과 배고픔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도움의 손을 내밀어 용기와 희망을 주려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이미 회장은 “바쁜 지난 한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금 모금 및 봉사에 헌신해 주신 회원들과 임원, 후원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며 “지난해 워싱턴 DC지부는 골프대회 및 바자회, 감사 후원의 밤에서 모인 수익금으로 밀알 선교회, 가정상담소, 사람난민센터 등에 도움을 주었다”고 전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모은 성금으로 탄자니아, 케냐에 2만5천 달러를 전달했다. 그는 “지난해 모금액이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세 곳을 후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모든 것이 여러분의 적극적인 헌신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워싱턴 지부는 올해도 한 마음으로, 지구촌에 굶주리는 어린이가 없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른쪽부터) 이이미 회장과 이성숙, 캐서린 존스, 김신아, 김수진, 김미향 임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마크장 메릴랜드 주하원 의원을 비롯해 이지호 참사관, 리다 나루즈 살람센터 목사 등이 축사를 전했다. 앤젤린 조 GCF 총회장의 인사말을 김제민 동부 지역회장이 대독했다.

GCF 공동 창립자 손목자 이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26년전 한국은 IMF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으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속수무책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 12만명이 생겨났다”면서 “안타까운 고국의 소식을 듣고 미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우리라도 합심해 아이들을 먹이자’는 일념으

로 ‘나라사랑 어머니회’를 결성한 것이 오늘날의 GCF에 이르렀다”며 재단을 소개했다.

이날 문화공연 순서에는 신윤수 테너가 ‘오 솔레미오’ 등의 축하 무대를 꾸몄다. 이어진 시상 순서에서 재단은 마이크 김, 김형목 씨에게 감사패를, 손영환, 김용남 씨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 사회는 이성숙, 엘리슨 정 씨가 진행했으며, 새미한 장로교회 이일복 담임 목사가 단체를 통해 키워지는 어린이들이 미래 소망이 되어 새로운 물결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내용으로 기도했다. 김윤미 기자

재향군인회 9대 회장선거 김인철 회장 단독 입후보 ‘사실상 당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동부지회 9대회장 선거등록일이 지난 2일 마감됐다. 단독 입후보 한 김인철 현 회장이 9대 회장으로 사실상 당선됐다.

지난 3일 오후 2시, 선거 관리 위원회는 최민엽 간사 사무실에서 김인철 후보의 등록 서류를 검토하고 “이상점이 발견되지 않아 9대 회장 후보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선거권위는 오는 8일(목),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제협력실에서 실시하는 입후보자

심사를 위해 김 후보의 서류들을 3일 본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입후보 서류가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선관위는 오는 17일(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장로교회에서 실시하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31명 대의원 동의를 얻어 단독 입후보 한 김인철 후보에 대한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렸다. 이 과정을 통해 김인철 후보는 9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김윤미 기자



(왼쪽부터) 이우찬 이사, 이해일 부위원장, 권용호 위원, 최민엽 간사, 이종기 위원, 김용운 위원

“전기차 때문에 가드레일 모두 바꾸냐”

배터리 때문에 중량 높은 전기차들, 기존 가드레일 사고 충격 못 막아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훨씬 무거워 철제 가드레일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네브래스카대학이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한 공항 활주로 안전시설에서 충돌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시속 60마일로 달리던 약 3톤 무게의 리비안 R1T 전기차가 철제 가드레일을 뚫고 지나갔다.

테스트에 사용된 가드레일은 미국 도로에 설치된 대부분의 가드레일처럼 무게가 5000파운드(약 2200kg) 이상인 차량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전기차는 배터리 중량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무게가 20%에서 50%까지 더 나간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집중돼 무게중심이 낮아 가드레일 충돌시 더욱 나쁜 결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 픽업트럭은 충분한 주행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자동차보

다 훨씬 더 큰 배터리가 필요하다.

포드 F-150 라이트닝 픽업트럭은 최대 3127kg로, 내연기관을 장착한 F-150보다 약 1톤이 더 나간다. 대형 SUV 전기차와 전기 트럭이 충돌시 상대 차량과 보행자 등의 위험성은 일반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훨씬 크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배터리를 더 많이 장착하면서 가드레일을 비롯한 각종 안전관련 시설을 개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달 한파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방전으로 대규모 견인사태가 발생한 것보다 가드레일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테슬라 등 전기차량은 무거운 중량 탓에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타이어 수명도 30~40% 정도 짧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테슬라는 최근 경고등 글씨가 너무 작아 위험하다는 지적과 함께 220만대 리콜을 단행했다. 김옥재 기자



JUB 설 맞이 문화공연 JUB 한국문화예술원(원장 변재은) 단원들이 오는 10일 '설 날'을 기념해 버지니아 센터빌 소재 콜린 파월 초등학교에서 태권도 및 한국무용, 난타 공연(사진 왼쪽)을 선보였다. 지난 2일 열린 공연은 꼭두각시춤(오른쪽)에 이시은, 류사랑, 안정아, 정이현, 이하린 어린이가 무대에 올라 앙증맞은 귀여움으로 환호를 받았다. 이어 유니스 차 양과 정이준 군이 박진감있는 난타 무대를 꾸며 박수 갈채를 받았으며 태권도의 절도감 있는 공연에는 모두가 큰 호응으로 공감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미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너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너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 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굤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피해자 가족에 용서 구하겠다”

조기출소 앤드루 서 기자회견
회전 내내 울먹이며 눈물 닦아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50·한국명)씨가 조기 출소 후 처음으로 언론에 소식을 밝혔다.

출소한 지 일주일만이다.

2일 일리노이주 윌링 그레이스 교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서씨는 먼저 “30년 전 큰일을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갔다”며 “기쁘고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론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매우 복잡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100년형을 선고받고 19살(1993년) 때 수감 생활을 시작하였다. 서씨는 울먹이며 유가족에 대한 사과의 마음도 전했다.

그는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다”며 “피해자 가족이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용서를 구할 것이며 기회가 생기면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씨의 양아버지 김한철 장로가 본지에 인터뷰한대로 향후 청소년 사역



2일 장기수였던 앤드루 서(오른쪽)씨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양아버지 김한철 장로와 포옹하고 있다.

과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할 계획도 밝혔다. 서씨는 “아직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해봐야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을 커뮤니티에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다”며 “청소년과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씨는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의 삶은 축복이고 감사할

뿐이며 여전히 얼떨떨하지만 두 번째로 태어난 것”이라며 “그동안 한인사회가 저를 버리지 않고 기억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1976년 시카고에 이민 온 서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누나에게 의지해 살았다. 이후 누나의 사주를 받고 지난 1993년 9월 살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서씨의 누나 캐서린(54)은 현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장영기 기자

앤디 김, 12%p 차이 1위 교수

인지도에선 머피에 16%p 열세



뉴저지 연방 상원에 도전 중인 앤디 김(사진) 하원의원이 경쟁 후보를 12% 포인트 차이로 리드하고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주요 언론들은 김 의원이 당내 예선에 투표하겠다고 밝힌 유권자들 사이에서 32%의 지지율을 보여 20%에 그친 데이 머피 후보를 두자리 숫자 차이로 앞섰다고 2일 일제히 보도했다.

매체들이 인용한 페어레이디킨슨 대학(FDU)의 여론조사에서 김 의원은 스스로 진보 성향을 갖고 있다고 밝힌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21~15% 포인트 차이로 더 큰폭의 리드를 보였다. 반면 당원 중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밝힌 7%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머피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머피는 68%,

김 의원은 52%를 얻어 아직 캠페인이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1%를 기록해 앞으로 펼쳐질 캠페인과 공약을 지켜봐야 한다는 비중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DU의 이번 여론조사는 올해 1월 21일부터 28일까지 뉴저지 내 민주당 소속 유권자 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인성 기자

한식당에 손님 가장해 들어가 가방 날치기

방범카메라에 범행과정 찍혀
경찰 “온라인 신고만”에 분통

한인식당서 음식만 먹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에 이어 손님 가방을 노린 절도 범죄가 벌어졌다. 용의자들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재빠르게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일 오후 7시 45분쯤 한인 이모(여, 40대)씨는 일행 3명과 LA한인타운 김밥천국 식당을 찾았다. 이씨와 일행은 평소처럼 식당 안쪽 테이블에 앉았고,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고 한다. 이때 비한인 남자가 들어왔다. 이들은 식당이 한산했음에도 직원에게 이씨 일행 뒷자리 테이블에 앉고 싶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피해자 이씨는 “내가 앉은 자리 뒤쪽에 남자가 앉았고 처음엔 신경 쓰지 못했다”며 “같이 온 일행이 뒤에 앉았던 남자가 갑자기 일어나 나갔으며 가방을 확인하라고 했다. 뒤돌아본 순간 등받이 의자에 걸쳐놓은 크로스백 가방이 사라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밥천국이 공개한 방범카메라 영상에는 절도 용의자 남녀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식당에 손님인 척 들어와 한인 여성의 가방을 훔치려고 시도하는 모습(빨간색 원). [김밥천국 제공]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 남녀는 우선 김밥천국 입구 창밖에서 2분여 동안 식당 안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이들은 손님인 척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이씨 일행 뒷자리 테이블에 앉아 메뉴판을 보는 척했다. 용의자 중 여성이 화장실을 갔다 오자 남성은 자리를 뜨는 척 등받이 의자에 걸쳐놓은 외투를 챙겼고, 그 순간 그는 이씨의 가방을 몰래 낚아 외투 속에 감춘 채 자리를 떴다.

남성이 자리를 뜨면서 가방을 낚아채 사라지기까지 시간은 10초 안팎. 용의자들은 식당 밖으로 나오자마자 미리 대기하던 검은색 세단으로 달려간 뒤 차를 타고 도주했다.

김밥천국 측은 “손님이 가방을 도난

당했다고 말씀한 뒤 방범카메라 영상을 확인해보니 계획적이었다”며 “간혹 음식을 먹고 도망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식당 안에서 가방을 훔쳐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피해자 이씨는 방범카메라 영상 등을 토대로 LA경찰국(LAPD) 웹사이트에 도난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이씨의 한 일행은 “사건 직후 김밥천국 측이 올림픽경찰서에 찾아가 신고했는데 오후 8시가 넘었다며 온라인 신고만 하라고 해 답답했다”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한편 피해자 이씨는 “가방 안에 일 관련 서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가 들어간 지갑, 자동차 여부용 열쇠 등이 있었다”며 “그들은 가방을 훔쳐간 직후 타깃 매장에서 신용카드를 200달러를 긁었다. 2차 피해가 있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저녁 시간대 남녀가 데이트하듯 식당에 들어와서 가방을 훔쳐갈 줄은 몰랐다. 항상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김밥천국 측은 절도 용의자 남녀가 찍힌 영상 화면을 출력해 식당 입구에 붙이는 등 예방활동에 나섰다.

김형재 기자

1월 고용 블록버스터급 증가

예상밖 35만3천건 ↑

1월 일자리가 예상을 뛰어넘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제가 고물가·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노동시장이 물가 상승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연방 노동부는 2일 올해 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35만3천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48만2천건)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5000건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약 2배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증가 폭도 직전 발표에서의 21만6000건에서 33만3000건으로 상향 조정됐다.

2023년 하반기 이후 월간 고용 증가 폭이 20만건 언저리에 머물렀던 점을 고려하면 2개월 연속 고용 증가 폭이 30만건을 웃돈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실업률은 3.7%로 3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소폭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 전망치(3.8%)를 밑돌았다.

두 달 연속 30만건을 웃도는 고용 증가 폭은 고금리가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운데서도 실물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뜨거운 고용시장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한층 약화할 전망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하려면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해왔다.



아마존 직원들이 배송 업무하는 모습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고법원 재판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격정도 많고, 금근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주택자금 못 빌려 엄마 살해”

Special Story

버지니아 여성, 종신행 선고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총격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던 여성이 끝내 진실이 드러나 종신행을 선고 받았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2017년 1급 살인혐의로 기소된 메간 하겐(41·사진 왼쪽)에게 두 번의 종신행을 판결 했다.

경찰과 검찰은 2017년 7월 14일 사건 발생 당시 애초 헬렌 하겐(사건 당시 24세·오른쪽 위)가 맥클린에 거주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던 어머니 파멜라 하겐(사건 당시 63세·오른쪽 아래)를 총으로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당국에서는 16개월 동안의



추가 조사 끝에 파멜라 하겐의 또다른 딸 메간 하겐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법원 기록에 의하면 파멜라는 범행 직전 어머니의 은행 계좌로부터 42만달러를 인출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메간은 이전에도 어머니의 수표를 위조해 주택구입대금을 치르려다가 들롱나서 한차례 감동을 겪은 바 있으며, 어머니가 여동생에게만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한 것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메간은 당시 주택을 구매할 후 클로징 비용을 치르기 어려워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천문을 거역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2022년 3월 배심원 재판의 형식적, 실질적 오류로 인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가, 2023년 검찰의 재기소를 통해 종신행 선고가 나왔다.

하지만 메간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변호인은 메간이 범행 추정 시간 이전에 어머니 집을 떠나는 장면이 찍힌 감시카메라 영상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동영상에 찍힌 시점이 범행 이전이라고 주장한 것이나, 검찰 측은 애초에 동영상 녹화장치의 시간이 잘못 입력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옥채 기자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아이린 신 의원 발의안 통과

버지니아 하원의회에서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대0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한인 아이린 신(사진)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완전 신체 상태 혹은 공공장소에서 생식기와 둔부, 가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이미지 등을 노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 의원의 법안은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본질적으로 성적인 이미지’일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된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상당수의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유포됐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공소시효 규정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지니아범죄피해자지원연대(VVAN) 측은 “관계가 좋을 때 동의 하에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리벤지 포르노



로 되돌아온다”면서 “관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체노출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으로 보이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와 규명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법률상 협박, 강요,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드 이미지 등을 악의적으로 판매 혹은 배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수잔나 김슨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김슨(40)은 작년 11월 VA 주하원의원 제 57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인물이다. 선거 유세 기간 중 김슨이 자위행위 등 성적 행동을 하는 동영상에 포르노사이트에 유포됐는데, 김슨은 공화당의 악의적인 행위라고 규탄하고 리벤지 포르노 법률을 강화해 이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버지니아 페어팩스 인구감소 우려

버지니아대학(UVA) 웰돈 쿠퍼 공공서비스정책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버지니아의 인구증가율은 0.4%에 불과해 19세기 남북전쟁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페어팩스 카운티와 노퍽 등 버지니아 도심지역은 코로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증가율도 1%에 미치지 못해 10년 단위



페어팩스 Mosaic District.

증가율도 따져도 1870년대 10년 동안 0.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의 여전히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많긴 하지만, 출생-사망 인

구 순증가분이 2019년 2만7천명에서 2022년 1만3천명으로 줄었다.

버지니아 인구가 크게 둔화되고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감소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버지니아의 다른 외곽지역으로 전출하는 인구가 두드러졌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2020년 이후 1만911명이 감소했는데, 전입인구 2만2642명, 전출인구 3만3553명을 기록했으며 이중 상당수가 외곽지역으로 전출했다.

김옥채 기자

“6주 안에 봄”...그라운드호그 데이 예측

펜실베이니아 고블러스 례에서 진행된 그라운드호그 데이 기념행사에서 올해 겨울이 6주 안에 끝나고 봄이 온다는 예측이 나왔다.

매년 2월 2일 그라운드호그 데이는 설치류 일종인 그라운드 호그를 통해 겨울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점쳐보는 행사가 열린다. 독일의 전통 풍속으로 이어져오다가 펜실베이니아로 집단 이주한 독일계 이민자 커뮤니티 의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라운드호그가 굴에서 나와서 자기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 다시 굴로 돌아간다면 봄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며, 6주간 겨울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그라운드호그가 자기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서 놀라지 않으면, 곧



지난 2일 펜실베이니아에서 그라운드 호그 ‘필’을 진행자가 안고 있다.

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올해 행사에 동원된 그라운드 호그는 자기 그림자를 보지 않아 곧 봄이 올 것으로 예측됐다. 연방해양대기청(NOAA)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래 그라운드호그 데이 예측 적중률은 40% 정도에 불과하다.

김민미 기자

워싱턴 DC 매독환자 급증 DC 발병률 전국 3위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최근 매독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염성 성병인 매독은 지난 1950년 이후 미국에서 거의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7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 20만7000건의 매독 감염 사

례가 보고됐는데, 이는 전년 17%, 2018년 대비 80%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신생아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률이 급증해 2022년 선전성 매독만 3700건 이상 보고됐다. 이는 10년 전보다 11배 이상 많은 것이다. 매독으로 인해 2022년 231건의 사산이 발생했으며 신생아 51명이 사망했다.

매독은 성 접촉에 의해 전염되며 발진과 발열, 피로, 두통 등을 유발한다.

당국에서는 임질 등 다른 성병은 감소함에도 매독이 급증하는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콘돔 사용량이 줄어들고 팬데믹 기간 병원을 기피하는 등 여러 요인이 겹친 탓이라고 전했다.

당국에서는 알래스카 원주민과 아메리칸 원주민 계층과 사우스 다코타, 뉴 멕시코, 워싱턴DC 등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 **배준원** 융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reenwayhomeloans.com
(NMLS# 178471)

미팅 모임 장소가 필요하십니까?
센터빌 오피스 미팅룸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월-토)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이웨이 건너편 위치)

Greenway FUNDING GROUP, INC.
VA, MD, DC, NC, DE, TX, PA, WV, GA, SC, FL

Greenway Funding Group,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C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Delaware Office of the State Bank Commissioner,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West Virginia Di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Georgia Department of Banking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License Numbers: DC MLB 1108695; MD 0620265; NC L-161472; VA MC-5777; DE 030465; TX: PA 101075; WV ML-1108695; MB-1108695; GA 1108695; SC 1108695; FL MLD2368 Greenway Funding Group Inc. NMLS# 1108695 www.nmlsconsumeraccess.org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아라조)빌딩
웨이브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운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주세요~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칠레 집어삼킨 화마 '역대급 참사'

“사망·실종 최소 260여명”
‘525명 사망’ 2010년 강진과 비견

남미 칠레 중부를 삼시간에 집어삼킨 화마로 인명피해가 감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최소 64명이 숨진 것에 더해 200여명의 생사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국이 진화와 실종자 수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4일(현지시간) 칠레 대통령실 소셜미디어와 국가재난예방대응청(세나프레드·Senafred)에서 제공하는 재난정보에 따르면 중부 발파라이소주(州)에서는 지난 2일 오후 페뉴엘라 호수 보호구역 인근에서 산불 신고가 접수됐다.

불의 기세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 등 영향으로 급세 거세졌다. 여기에 더해 불길은 강풍을 타고 민가쪽으로 삼시간에 번졌다고 당국은 밝혔다. 특히 토요일이었던 3일에는 최대 풍속 시속 60km까지 기록될 정도로 바람이 쐬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칠레 대표적 휴양지인 비냐델마르를 비롯해 킬푸에, 비야알레마나, 리마세 등에 집중됐다.

공단 지역인 엘살토에서는 페인트 공장이 화염에 휩싸였고, 내부에

서 인화성 물질로 인한 폭발도 발생했다. 국가에서 관리한 지 73년 넘은 역사 깊은 식물원은 90% 이상 소실됐고, 안에서는 근로자 가족 4명이 숨졌다.

인명 피해도 커지고 있다. 세나프레드는 지금까지 최소 6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시시각각 바뀌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마카레나 리파몬티 비냐델마르 시장은 “생사 확인이 어려운 사람의 숫자는 200여명에 이른다”며 “일부 가족들과 연락이 닿은 사람도 있지만, 현재 이 추정치는 중앙정부 데이터와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소방관과 군 장병을 동원해 진화와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주 남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대응으로 총력 대응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지 매체인 라테르세라는 전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에서 525명의 사망자를 낸 2010년 2월의 규모 8.8 대지진과 쓰나미를 언급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2010년 참사 이후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최저시급 25% 상승

오는 4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주요 패스트푸드 체인 종업원의 최저시급이 20달러로 오르면서 대형 외식업체 체인들이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는 인간비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매장의 메뉴 가격을 5~9% 인상할 예정이다.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해 지난 2년간 메뉴 가격을 4차례 인상한 데 이어 인간비 상승 대응 명목으로 추가 가격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맥도날드, 잭인더박스 등 다른 패스트푸드 업체들도 올해 인간비 상승을

반영해 캘리포니아주 점포의 메뉴 가격 인상을 예정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맥도날드 점주 협회는 올해 추가 인간비 상승 폭이 점포당 연간 2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패스트푸드 업체 종사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달러로 인상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종업원의 최저시급이 16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인상은 25%에 달한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22년 주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에 패스트푸드 업계 감독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위원회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22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집권시 중국에 가혹한 관세 매길 것”

폭스뉴스 인터뷰서 발언
“무역전쟁 하려는 건 아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중국에 60% 넘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직접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방송된 폭스뉴스 프로그램 ‘선데이모닝 퓨처스’와의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해 질문받자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시 대중국 관세율 60% 일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 최근 보도에 대해 확인을 요구받자 그는 “아니다. 아마도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달 아이오와, 뉴햄프셔 경선에서 승리한 뒤 주식 시장이 하락했다면 서 자신의 재집권과 그에 이은 추가적



인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장도 의식하고 있음을 자랑하듯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과 이른바 “무역전쟁”을 벌이며 2018년과 2019년 이미 중국산 제품에 수십억 달러(수조원) 규모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재집권 시 60% 또는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것은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디커플링(decoupling·단절)’ 기조를 의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은 무역 전쟁이 아니다”라며 “나는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과 모든 면에서 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중국이 잘 되길 원한다”며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매우 좋아한다. 그는 내 임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 매우 좋은 친구였다”고 부연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전 인터뷰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취임 직후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현 정부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을 뒤집겠다는 취지의 농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직후) 국경을 닫고, 유정을 파겠다(석유 생산)는 것이 전부였고, 그 이후엔 ‘독재자’가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였다”면서 ‘독재자’ 언급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국가안보보좌관 “보복 공격 계속될 것…미군 사망 엄중 대응”

제이크 설리번(사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 요르단에서 3명의 미군이 친이란 민병대 공격에 사망한 데 따른 보복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NBC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보복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3명의 미군 사망 이후 대통령은 엄중한 보복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그것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지난 2일 (시리아·이라



공격받을 경우 보복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민병대 세력에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분석 중이지만, 공격은 이들 민병대의 세력을 약화하는 데에 좋은 효과를 발휘했

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보복 공격에 따른 중동에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선 “무엇보다 흥회에서 벌어진 일은 이스라엘 전쟁과 무관하며, 이라크와 시리아 공격은 요르단에서의 미군 사망에 따른 것”이라며 사안에 따른 대응일 뿐 확산과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에 대한 공격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며, 또한 중동에서 확산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황, 반유대주의 우려…“가톨릭과 유대인들 연대의 길 가야”

지난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직후 명백한 규탄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 이스라엘의 반발을 샀던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반유대주의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유대계의 반발을 달래며 관계 개선 손길을 내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AFP-AP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바티칸이 3일(현지시간) 공개한 ‘이스라엘에 있는 나의 유대인 형제자매들에게’라는 서한에서 “전쟁 발발 후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 끔찍하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매우 우려한다”고 썼다.



가톨릭 신자들은 함께 파괴된 세계를 복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우정과 연대, 협력의 길을 가야 한다”며 유대계와 가톨릭계의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자지구의 반복되는 분쟁과 국제적 여론 분열 현상을 두고는 “우리는 ‘다시 그레산 안 된다’는 말을 새로운 세대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그런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서한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직후 즉각 하마스를 규탄하지 않았다가 유대계로부터 비난을 샀던 교황이 뒤늦은 관계 개선 시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AP는 전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교황은 양측에 무력 충돌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인질과 가자지구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러자 이스라엘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가자지구 민간인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한미 자유 연맹 12대 총재 취임 및 정기총회

고국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반대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지지하며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 동포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한 주민 인권 활동을 목표로 하는 “한미 자유 연맹”이 아래와 같이 제12대 총재 취임식 및 정기총회를 갖고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이 참석 하셔서 격려와 지도 편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 시 : 2024년 2월 10일 (토) 오전 11시
- 장 소 : 한인 커뮤니티 센터 소강당
6601 Little River Turnpike, Alexandria, VA 22312
- 문 의 : 사무총장 301-785-0111 / 부총재 240-687-2457



한미자유연맹
US-KOREA FREEDOM ALLIANCE

총재: 송재성 / 부총재: 이인갑, 김명옥 / 사무총장: 정순희 / 재무: 최세일
고문: 유흥주, 권동환, 전용운, 이은애, 린다한, 마이클이, 손경준, 조창석, 손종락, 박로사, 정세권, 박태수
자문: 김유숙, 이태하, 김영창, 우성원, 김용돈, 오인환, 이재성
이사: 김종훈, 김덕만, 정운익, 박종윤, 박남배, 조영길, 옥경호, 홍요섭, 박광우, 윤영숙, 정인상, 김정태, 허건행, Mija Pesksons, 이기훈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미, 시리아·이라크·예멘 잇단 공습... 이란 “안보리가 나서라”

(후티반군)

‘미군 3명 사망’에 대대적 보복
백악관 “친이란세력 공격 막은 것”
이라크·시리아 “민간인 숨져” 비난

미국이 친(親)이란 무장세력에 대해 대대적인 보복 공습을 가하자 이란과 러시아 등이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중동 지역 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칸 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라크·시리아 공격은 역내 긴장과 불안을 키우는 미국의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보복 공습에 대한 이란 정부의 공식 반응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칸 아니 대변인은 또 “(미국의 공격은) 이스라엘 시온주의자 정권의 가짜 지구 내 범죄를 덮기 위해 행해진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미국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친이란 무장세력의 근거지가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 정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라크 정부는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16명이 숨졌다”며 자국 주재



친이란 반군 공격으로 숨진 미군의 관이 바이든 대통령(가운데)이 조의를 표하는 가운데 지난 2일 미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3일 예멘 후티반군 기지를 공습하는 미군 중부사령부 전함. [AP-AFP=연합뉴스]

미국대사대리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리아 국방부는 “미군의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공습을 단호히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의 소집을 요청했다. 앞서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지난 2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과 친이란 민병대의 활동 지역인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을 대대적으로 공습했다고 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말 요르단 주둔 미군기지에서도 벌어진 이들의 무인기(드론) 공습으로 미군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친 일에 대한 보복 성격이다.

이번 공격은 지휘통제센터, 로켓·미사일·드론 등 무기 보관창고, 군수 공급망 시설 등을 목표로 했다. 미군은 장거리 폭격기 등을 동원해 85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다음 날(3일) 영국군과 함께 예멘의 수도 사나 등 후티 반군의 무기 저장고와 미사일·방공시스템이 있는 13개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후티가 국제 민간 선박 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공격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미 정부는 2일 보복 공습과 3일 후티 공격은 이란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2일 공격의 목적은 이란과의 전쟁이 아니라 IRGC와 관련 단체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군의 군사행동이 확대됨에 따라 중동 지역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3일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중동에서 갈등이 확산하는 최신 징후”라고 평가했다.

미국 내에선 공습 방식의 대응으로 한계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친이란 무장세력의 미군 공격을 완전히 억제하기는 역부족”이라며 “미국의 보복으로 중동 정세의 주도권이 이란으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임주리 기자

WSJ “머스크, 이사들과 마약파티... 왕처럼 행세” 추가 폭로

일론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회사의 전·현직 이사들과 파티에서 마약을 하고, 왕처럼 행세하면서 마약을 강요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폭로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 회사인 테슬라·스페이스X 등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런 압박을 느꼈다고 전했다.

WSJ은 앞서 지난달에도 머스크의 마약 복용 의혹을 보도했는데, 당시 머스크는 “검사에서 약물이나 알코올은 미량도 검출되지 않았다”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보도에서 WSJ은 머스크



크가 마약을 하는 현장에 있었다거나, 관련 상황을 잘 안다는 여러 소식통을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이사진을 포함한 머스크 측근은 그가 유도하는 분위기에 따라 그와 함께 마약을 해야 할 것 같아 느꼈다고 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들이 머스크의 기분이 상하지 않기를 바랐으며, 특히 머스크가 막대한 부를 안겨줬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머스크의 지근거리에서 지내면서 얻게 되는 ‘사회적 자산’을 잃고 싶어하지 않았고, 일부는 자신

이 마치 ‘왕’과 가깝게 지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머스크와 그의 변호사는 의혹에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WSJ은 이날 보도에서 머스크가 참석했다는 ‘마약파티’ 장소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머스크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프로퍼 호텔’에서 열린 사교 모임에 참석해왔으며, 여기에서 수차례 환락을 목적으로 케타민을 했다는 게 WSJ의 보도 내용이다.

이 모임에는 테슬라 이사이자 에어비엔비 공동 창업자인 조 게이비도 동석했다고 언급했다. 또 머스크와 함께 마

약을 복용한 이사진으로는 그의 형제인 킴벌 머스크, 전 테슬라 사외이사인 안토니오 그라시아스, 스페이스X 초기 투자자인 스티브 저벳슨을 지목했고, 이 중 일부는 마약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했다. 특히 저벳슨은 엑스터시, LSD를 하는 파티에 머스크와 함께 참석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머스크와 이사진이 함께 사용하는 마약의 분량이 많으면서 점점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머스크가 거느린 회사의 이사회에서는 이를 알고도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회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WSJ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전·현직 이사들은 머스크의 불법 마약 사용을 알고 있었지만, 공개적 행동에 나

서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머스크 회사의 다른 이사들은 머스크와 깊은 개인적, 재정적 고리로 연결돼 있고, 이 관계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봤기 때문이라는 게 WSJ의 추론이다. 이사진 중 그라시아스는 그의 벤처캐피탈 회사 등을 통해 머스크의 회사들에 15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금을 보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머스크에 승인됐던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에 제동을 건 것에도 이런 맥락이 작용했다고 WSJ은 분석했다.

앞서 2018년 한 소액주주는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낸 보상을 문제 삼아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내 승소한 적이 있다. 임성민 기자

▶ 1면 ‘트럼프’에서 이어집니다

공화당 1,2호 대선 경선인 지난달 아이오와 코커스(당원투표)와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경선)에서 2연승을 거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록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오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전 대

통령 주변에서는 일찌감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이다. 측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표나 유색 인종, 중도층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흑인이나 여성 러닝메이트를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스콧 의원을 비롯해 놉 주지사, 엘리

스터파니 하원의원, 새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등이 후보군에 포함됐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서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매코널이 나를 지지하기를 원한

다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들은 바”라면서 “공화당의 절반이 나를 지지하고 있고, 나머지도 곧 지지할 것이다. 그가 나를 지지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지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줄을 서고 있으며, 승선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지휘하는 공화당은 거대한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비롯해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표, 톰 에머 원내수석부대표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모두 경선 일정 시작 전에 줄줄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이미 선언했다. 지극히 이례적인 이 같은 현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세론의 위력을 보여주는 징표로 받아들여진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다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동국대학교 워싱턴 동문회

구정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들을 모시고
활기찬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한
동문회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시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며
동문간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 시: 2024년 2월 9일 (오후 6시)

· 장 소: 한강 7243 Little River Turnpike, Annandale, VA 22003

문의: 회장 김유신 (703.732.4167), 총무 이동번 (240-423-4208)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친한 사이, 더 심한 갈등 생기기 쉬워...도 넘으면 둘 다 손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노출돼 국민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여당 정치인과 야당 정치인의 대립은 어느 정도 당연한 만큼, 놀란 일은 아니지만 같은 여당의 그것도 오랜 기간 같이 일해 대단히 친밀한 관계로 잘 알려진 두 사람의 갈등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학의 '홀드업 문제(hold-up problem)'라는 이론에 따르면 오히려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쉽다. 필자의 개인적 경험으로도 큰 갈등을 겪었던 대상 중에 잘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매일 만나서 같이 일하는 친밀한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대부분이다.

잘 모르는 사람엔 되레 예의 바른 태도

왜 그럴까. 나와 별 관련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로서는 다시 만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게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해주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사이에서는 무례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다투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관계를 맺는 행동을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한다.

자동차를 생산하는 갑(甲)이라는 대기업이 자동차의 창으로 쓸 유리가 필요한데, 이를 직접 생산하는 기술이 없어서 유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을(乙)이라는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그 계약에 따르면 해당 중소기업은 자동차를 만드는 대기업인 갑의 주문에 따라서 유리를 생산해야 한다. 모든 자동차의 유리가 똑같은 모양과 품질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자동차는 디자인이 다양한 관계로 을로서는 갑을 위해 대량의 자동차 유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동차 기업들을 위한 생산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물론 갑이라는 대기업에 꾸준히 납품할 수 있다면 을로서는 큰 이익이므로 갑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갑을 위한 자동차 유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유리가 아니라 특정 회사를 위한 특정한 유리를 제조하기 위해서 을이라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생산 설비를 변경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특정 관계를 위한 투자'(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라고 부른다. 특정 관계를 위한 투자를 했다는 의미는 다른 거래처와는 더 이상 거래를 하기 힘들 상황

이라는 의미다.

일단 을이 갑을 위해서만 자동차 유리를 생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갑으로서 자신의 자동차에 필요한 유리를 을이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이므로 을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경제학의 홀드업 이론에 따르면 갑은 자신을 위해 특정 관계를 위한 투자를 통해 자동차 유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는커녕 을을 더 압박해서 납품 가격을 낮추고 납품 기간을 더 당기고 자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바로 을이 갑의 자동차에만 쓰일 수 있고 다른 용도에 쓰일 수 없는 독특한 디자인의 유리를 생산함으로써 갑 이외의 기업에는 유리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즉, 을로서는 갑의 무리한 요구에 기분이 상하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자신의 유리를 팔 수 있는 곳이 갑뿐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갑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어 홀드업(hold-up)은 '인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을이 갑에게만 팔 수 있도록 자신의 공장 설비를 갖추는 순간 을은 갑의 인질이 된다는 의미에서 경제학에서는 '홀드업 문제'라고 부른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대기업들이 횡포를 부린다고 이야기할 때 그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런 홀드업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만일 한 대기업이 횡포를 부린다면 중소기업은 그 대기업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대기업과 거래를 하면 된다. 하지만 특정 관계를 위한 투자를 이미 진행한 중소기업은 더 이상 다른 기업에

홀드업 이론으로 본 상호 관계

홀드업, 경제학에선 '인질'이란 의미 특정 대기업만 거래하는 중소기업 갑·을 존재하지만 결국 서로의 인질

가족·직장 동료 경우도 홀드업 문제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불친절, 무리한 요구하다 갈등 발생 대통령·여당대표도 이번에 느꼈을 듯

자신의 물건을 팔 수 없거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다시 자신의 공장 설비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납품하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를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GM과 자동차 차체 생산업체 피셔 바디는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다 홀드업 문제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사진은 피셔 바디 생산 라인. [사진 클리블랜드 주립대 마이클 슈워츠 도서관]

홀드업 문제, 강자·약자 따로 있지 않아

지금부터 100년 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피셔 바디(Fisher Body)라는 자동차 차체(body) 즉, 자동차의 가장 바깥의 몸체를 만드는 중소기업이 있었다. 그런데 자동차 대기업인 GM이 피셔 바디에게 오로지 GM의 차체를 생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GM과 같은 대기업의 모든 차체를 공급하면 피셔 바디로서는 큰 이익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피셔 바디는 다른 자동차 기업의 차체를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이후 GM과 피셔 바디 사이에는 홀드업 문제가 발생했고, 그 결과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피해를 입은 측이 중소기업인 피셔 바디가 아니고 대기업인 GM이었다는 사실이다. GM이 차체를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셔 바디는 의도적으로 납품일을 늦추면서 GM에 "제 시간에 납품을 받으려면 차체 가격을 높여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결국 이런 피셔 바디의 무리한 요구를 참지 못한 GM은

1919년 피셔 바디를 인수했다고 한다.

홀드업 문제에서 강자와 약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피셔 바디에게 GM은 독점적인 구매자이므로 피셔 바디

를 협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반대로 GM에게도 피셔 바디는 독점적인 판매자이므로 피셔 바디가 GM을 협박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관계를 위한 투자를 한 주체는 피셔 바디뿐 아니라 GM이기도 했던 것이다. 양자는 서로의 인질이 된 셈이다. 인간이나 조직이나 한번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렇게 중대하고 무서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와 같이 가까운 관계의 사람 사이에서 오히려 극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홀드업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불쾌하게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 사람은 쉽게 나를 피해 떠나버릴 것이다.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나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잘 달래야 한다. 반면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경우에는 내가 다소 불쾌하게 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나를 버리고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자주 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여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홀드업 문제가 발생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다름을 벌이고 도를 넘은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 손해는 양측 모두가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마 대통령과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제 원리를 깨달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순구 1991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다. 게임이론의 권위자로 『그들은 왜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나』 『당신의 경제 IQ를 높여라』 등의 저서가 있다.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862-5395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선화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담당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리모델한 예쁜 타운하우스

Fairfax \$69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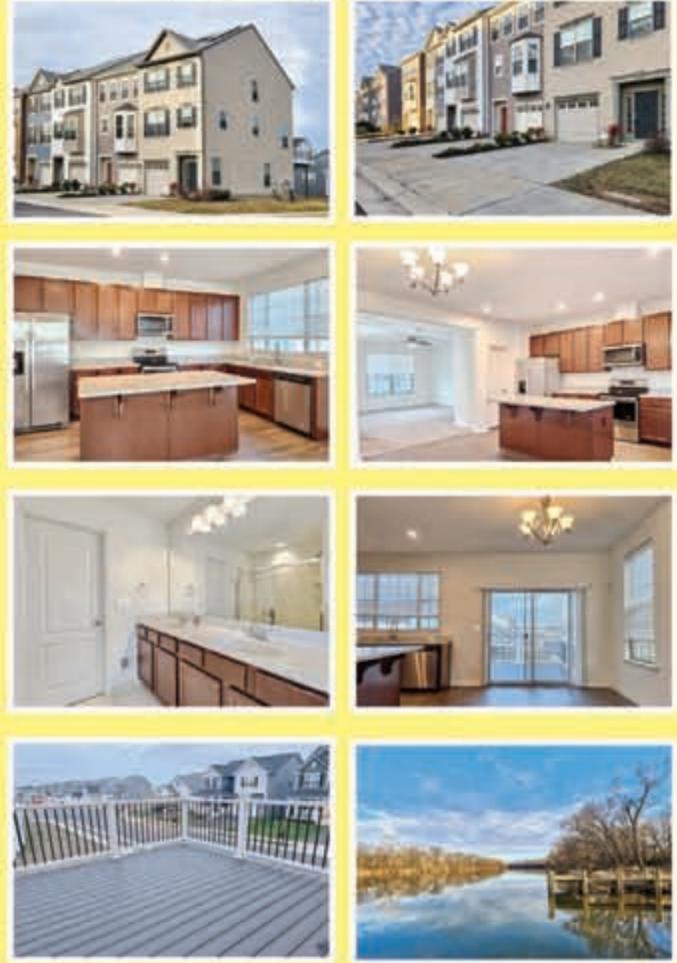
Costco 동네



2019년 엔드유닛 타운하우스

Fredericksburg \$395,900

새단지, 방3, 화장실3½



밝고 예쁜 콘도

Manassas \$219,900

End Unit, 세탁기·건조기 있음, Costco 가까움



리모델한 밝고 예쁜 콘도

Manassas \$295,000

방2, 화장실2, Costco 건너편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기는 법 위에 '튀는 놈' ... 실형선고 전 '도망자' 6000명 넘었다

형법상 '도주죄' 아니라 압색 못해

조직폭력배 A씨는 2022년 6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대가였다. 그러나 A씨는 불구속 재판 도중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달아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칼로 찌른 친형을 사칭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사이에도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또는 운전 중 시비로 주먹을 휘두르며 무법자로 지냈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은신처를 급습했을 때 그에게 누적된 지명수배만 무려 22건. A씨는 도망자 생활 1년4개월간 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른 뒤였다.

B씨는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450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2022년 1월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그 역시 선고 직전 도주해 1년 넘게 거리를 활보했다. B씨도 도주 중 또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공갈 범행을 저지르다가 그의 행방을 쫓던 수사기관에 지난해 1월 검거됐다.

실형을 확정받고 도주해 거리를 활보하는 '거리의 탈옥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거리 탈옥수는 금고 또는 징역형 확정선고 직전 도주해 구속을 피한 '자유형 미집행자'(이하 미집행자)를 말한다.

수사기관은 이들의 소재를 찾는 데 필요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이 전무하다.

법 규정상 형이 확정된 미집행자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없어서다.

무법자로 산 도주 조폭, 지명수배만 22건

4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누적 기준 미집행자는 6077명에 달했다. 거리를 활보하는 사실상의 탈옥수가 6000명을 넘은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미집행자는 2017년(4593명)→2018년(4458명)→2019년(4413명)→2020년(4548명)→2021년(5340명)→2022년(5912명)같이 꾸준히 증가 추세다. 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연간 60% 안팎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으론 6077명 미집행자 중 집행이 완료된 건 3683명(61%)이었다. 형의 시효 만료 등 기타 사유로 처리된 사람(144명·2%)을 제외하고 2250명(37%)에 달하는 '거리의 탈옥수'들은 2024년 현재 여전히 일반 시민 주변에 있다.

근본적으로 이들이 도주할 수 있는 건 법 집행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불구속 재판 중 피고인의 신병 관리 주체가

모호할뿐더러 24시간 감시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 재판에 넘긴 상태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예상해 미리 달아나는 걸 막을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불구속 재판 늘어...도망자 37% 검거 못해

피고인이 법정에 안 나오는 권석(闕席) 재판에 대비책이 없는 것도 미집행자 양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도망친 미집행자를 강제 수사할 법적 장치도 없다. 현행 형법에는 '범률에 따라 체포·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는 처벌하는 도주죄가 있지만, 미집행자는 '체포 또는 구금 전'에 도망쳐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니 형법 위반을 전제로 하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을 쓸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도 도망자에 대한 별도 강제집행 수단을 규정해 놓지 않았다.

검찰은 미집행자가 급증한 원인을

"2021년 1월 대법원 예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으로 법정구속을 제한하는 등 불구속 재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실제 미집행자는 2017~2020년까지 연간 4500명 안팎에서 2021년 이후 최근 3년 새 1500명(33.6%)이 급증했다. 국회에선 2022년 9월 미집행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근거 조항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됐지만 1년5개월간 방치돼 있다.

선진국은 '거리의 탈옥수'를 잡기 위해 법적으로 다양한 수단과 권한을 마련해 두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기소나 형 집행 및 법 적용을 피해 도주한 자를 '도망자(Fugitive)'로 규정하고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광범위한 강제수단을 동원한다. 미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USMS)이 일차적인 도망자 수사를 맡는다. 중요 범죄 피의자·범죄자의 경우 연방수사국(FBI)이 투입되고, 필요에

따라 비밀경호국(USSS)과 마약단속국(DEA), 지역 경찰이 추적 과정에 조력한다. '도망자 추적에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미국연방법), '체포될 사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미국연방형사소송 규칙) 등 법적 근거도 갖고 있다.

대륙법계의 원조인 독일은 일찍이 자유형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권한 등을 법에 규정했다. 형사소송법에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가 정해지고, 그것이 적합하면 집행관청은 형사소추청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프랑스 역시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시에 따라 도주한 자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강제수사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일본은 과거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수사제도가 없었지만, 지난해 11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판결의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등 제도'를 도입했다.

김중영 기자

이낙연·민주 탈당과 '새로운미래'로 합당...이원욱·조응천은 불참

"수평적 통합원칙 안 지켜져"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손을 잡고 4일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하지만 창당의 한 축인 '미래대연합'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돌연 합류를 거부했다.

야권에선 "중(中)텐트 단계부터 비틀거리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새로운미래 공동 창당대회 도중 입장문을 내고 "창당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 없이 몸만 얹어 주는 일"이라며 "통합의 원칙인 수평적 통합과 열린 통합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뭉치마 통합'을 위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로운미래 중앙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석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 김종민·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중호 기자

몸을 던지는 건 이윤배반적이고 불협화음만 날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전 대표는 "오전에도 두 의원과 통화했고,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뜻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불협화음은 전날부터 요란했다. 새로운미래 이석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내일 창당대회는 우리 측만 새

로운미래'라는 명칭으로 한다"고 밝히자 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수습했지만 내부에선 "갈등의 골이 생각보다 깊

다"(제3지대 관계자)는 말이 나왔다.

새로운미래의 핵심 관계자는 "정강·정책이나 창당 방향성, 통합 방식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으로 뭉쳤던 4인은 결국 각자 인생의 길로 헤어졌다. 운영관의원의 지난해 10월 민주당 잔류를 선언했고 김종민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와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됐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접점을 넓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조 의원은 이 대표와 원래 가깝고 비판적이던 이 의원도 최근 기류가 다소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재태 기자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을 한곳에서

2023 Return

A T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 케어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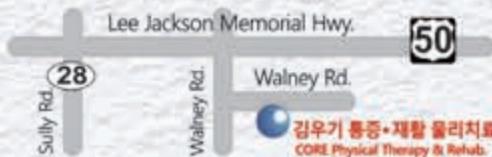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병원 자주 가면 진료비 더 낸다, 안가는 청년엔 12만원 바우처

(20~34세 건보가입자)

(연 최대)

진료 연365회 이상, 90% 본인 부담 하루 2번 물리치료 받아도 더 내야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20~34세)에게 연간 최대 12만원의 '청년 바우처'가 지급된다. 보험료의 일부를 건강 관리에 사용하게 돌려주는 것이다. 반면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의 부담은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청년 바우처(이용권)는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분기별 의료 이용량 1회 미만'인 사람을 예로 들었다.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지급되 상한액이 12만원이다. 사용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하게 제한된다. 우선 청년에게 시범사업을 한 뒤 전 연령대로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 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남용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강하게 생활하고 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한 사람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의료이용이 많으면 반대로 본인 부담률을 높인다. 우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경우에는 진료비의 90%(보통 때는 30%)를 본인이 내야 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이상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도 부담률이 올

라간다.

또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을 모바일로 알려주고, 외래진료 횟수가 180일이 넘으면 경고 메시지를 발송한다. 정부는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해 집처럼 사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 의료·요양·거주 등의 필요도를 통합적으로 판정하고, 사회적 입원을 부추기는 환자 분류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근로자와 달리 부정기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한다. 이미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유튜버와 소득 발생 양태가 비슷한 프리랜서에게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종합대책(때키지)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2028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 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고(보완형 공공정책수가), 시범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해 차등 보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렇게 지출을 늘려도 건강보험 적립금(지난해 말 28조원)이 2027년까지 30조원대를 유지하고, 2028년 28조4209억원(2.7개월 지급 가능) 남은 것으로 추계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2028년 고갈)와 차이가 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

리핑에서 "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거시적 추계를 하는 방식이어서 5년 단기간 추계에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미시적·단기적으로 추계해 정확도가 높다"고 말했다. 건보 재정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하기로 했다. 건보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10조 투입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의료개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성과 중심으로 가겠다는 방향성과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담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채혜선·문상혁 기자

정부 관계자 "의대 신설, 가능성 낮아... 의사 배출까지 오래 걸려"

▶ 1면 '의대정원'에서 이어집니다

그 이후 4년 간 점차 늘려 2029년에는 2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이후에 점차 늘어나려는 이유는 의과대학의 시설 투자와 교원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만5000명을 모두 의대 증

원으로 해결하지는 않는다. 일부는 은퇴한 의사를 활용해 필수의료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 은퇴 의사 활용은 대한 의사협회가 줄곧 주장해온 것이다.

정치권과 지방정부의 요구가 빚발치는 의과대학 신설 여부에 대해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사 배출에 시간이 오래 걸

려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의료수급 추계위원회(가칭) 같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만들어 3~5년 단위로 적절한 정원을 추계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원을 늘려서 계속 갈 수 없으니 수급위원회를 만들어 정원 축소 등

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원 확대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회원 대상으로 총과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 조사를 마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설문조사해 86%가 단체행동 참여 의사

를 밝혔다고 공개한 바 있다.

정부의 대응 방침도 강경하다. 윤 대통령은 1일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대국민 담화문 작성에 들어갔다. 파업을 시작하면 업무 복구 명령을 즉각 발동하고 업무 방해죄 적용 등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기간제 교사 뽑는데, 퇴직 교장이 왔다"... 학교 구인난

기간제 자리 증가, 교대생 등은 줄어

지난 2학기에 국어 기간제 교사를 선발한 서울 모 고교 A교장은 최종 합격한 B씨의 이력에 놀랐다. 수업 실습 등 공채 과정을 모두 거쳐 최고점자로 뽑힌 B씨가 60대 퇴직 교원인 데다, 서울의 명문 사립고 교장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고교의 C교사는 최근 학교에서 고교 시절 은사(恩師)인 D씨와 조우했다. D씨가 이 학교 지구과학 기간제 교사로 선발되면서 사제지간에서 동료 교사가 된 것이다. 그는 "학교에서도 젊은 교사를 원하지만, 지원자가 워낙 없고 마음에 드는 교사가 나타날 때까지 수업을 비울 수 없다 보니 '할생님(할아버지·할머니 선생님)'도 모셔오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구인난이 계속되면서 50~60대 퇴직 교원이 '귀한 몸'이 됐다. 교사가 부족한 일부 학교에선 즉각 현장에 투입할 퇴직 교원을 스카우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에 맞춰 기간제 교사의 연령 상한까지 풀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2013년 4만493명에서 지난해 6만5756명으로 10년 사이에 2만 명 이상 늘었다. 다양한 정책적 이유로 기간제 교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정규 교원의 결원이 생겨야만 뽑을 수 있다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풀었다. 이후 교육격차 해소, 신규 교원 채용 감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교원 수요를 기간제로 충당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수요는 많은

매해 증가하는 기간제 교원



데 현장에선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는 "경쟁률이 수십 대 1에서 2~3대 1로 떨어진 것은 물론, 공고를 올려도 한 번에 지원자가 오는 법이 없다"며

"교사가 되려는 교대, 사범대생이 줄어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독 수업이 가능한 기간제 교사가 되려면 교대나 사범대 졸업생 등에게 부여하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공백을 메운 게 50~60대 퇴직 교원이다. 강원도의 한 사립고 교사는 "우리 학교 61세 한문 과목 기간제 교사는 일부러 스카우트 한 분"이라며 "같은 강원권 안에서도 서울에서 먼 지역은 고령화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흐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의 연령 제한(65세 이하)을 완화했다. 현장에서는 기간제 고령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경북의 한 초등 교사는 "지난해 체육 담당 기간제 교사로 65세 퇴직 교원이 왔는데, 아이들이 '아나공'이라고 부른다. 걸핏하면 아이들에게 피구만 시키면서 '아나(여기있다)'는 뜻의 사투리, 공'이라고 말하기 때

문"이라고 말했다. 동료 교원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경기도의 한 연구부장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시험 출제나 각종 행정업무가 서툴다 보니 보직 교사들이 업무 폭탄을 떠안게 된다"고 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주요 업무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세 부 특기사항에 한두 문장 이상 적지를 못하더라"고 했다. 반면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은 "나이가 많다고 교사로서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에 대한 조언이나 수업과 관련해 후배 교원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멘토 역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청이 기간제 풀을 구성할 때부터 현장 연수를 받은 사람만 포함하는 등의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교사에게 주어진 행정업무를 도울 전담인력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지·서지원 기자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Eng/Kor) (구원번호)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2월 HOT 리스팅

꼭,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페어팩스 법원부근 타운홈

방3 + 화2, 차고 2
2767 sqft, 1996년

\$825,000

페어팩스 옥슨 고교부근 타운홈

방3 + 화3.5, 차고 2
2188 sqft, 1999년

\$900,000

페어팩스 피켓로드부근 싱글홈

방5 + 화4.5
3970 sqft, 2004년

\$1,4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 + 화3.5

\$530,000

애쉬번 타운홈

방3 + 화3.5, 차고1
1995년

\$500,000

애난데일 콘도

방1 + 화1

\$225,000

페어팩스 콘도

방2 + 화2
1214sqft, 1997년

\$403(콘도비)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베를린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무인점포 2시간마다 순찰 요구, 경찰 “우리가 경비원이냐”

무인 편의점 전년 대비 56% 늘고 영세점포들, 경비 대책은 CCTV뿐

서울 강북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A 경찰관은 지난달 112신고를 전달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초등학생 아이들 서너명이 아이스크림 무인점포 매장에 몇 시간째 안 나가고 냉동고 위에 앉아 있다. 내쫓아달라”는 내용이였다. A 경찰관은 “현장에 가보니 신고자는 없고 아이들만 있더라”며 “(아이들을) 타일러서 돌려보냈지만, 경찰이 사설 경비원도 아닌데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지 허탈했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무인점포가 많아지면서 경찰이 속을 끓이는 상황이 빈발

하고 있다. 서울 한 지구대 경찰관은 “1000~2000원 짜리 소액절도 사건 신고가 늘었다”며 “심지어 2시간마다 가게를 순찰해달라고 요구하는 업주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한 무인가게 앞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에 수시로 경찰 순찰 중”이라는 문구가 붙어있기도 했다.

하나 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 무인점포는 지난해 말 기준 3310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5.8% 급증한 수치다. 아이스크림·빨래방 등 다른 무인점포들도 지난해 3월 기준 6323곳으로 조사됐다(소방청 ‘2023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자료).

그 결과 무인점포의 특성을 악용한 ‘절도’ 사건이 급증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의 무인점포 절도 신고 건수는 6018건으로, 무인점포 범죄 집계를 시작한 2021년 3월~12월 절도 건수(3514건) 대비 71.25% 늘었다.

그나마 대기업 계열 편의점은 자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CU·세븐일레븐·이마트24는 안면 인식, 선반 무게 센서 등 시설을 갖춰 입장 때 본인 인증을 하면 자동으로 물건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CU와 GS25는 각각 보안업체와 손잡고 24시간 모니터링과 현장 경비 출동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무인점포는 사각지대다. 기본적인 폐쇄회로(CC)TV 설치 외엔 경비 대책이 전무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분쟁부터 절도 범죄까지 모두 경찰 신고해 해결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선 ‘점주가 부담해야 할 매장 경비·관리 책임을 경찰 치안 서비스에 전가하는 것’이란 불만이 터져 나온다. 한 경찰관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초·중학교 인근 무인점포가 절도 비율이 높는데, 점주들의 공통 의견은 ‘순찰차를 매장 앞에 세우고 거점 근무를 해달라’ ‘경찰에서 포스터, 경고문 만들어달라’ ‘절도가 몇 건씩 일어나는데 경찰은 뭐하느냐’라는 것”이라며 “출입문에 신분증 인식 출입기를

설치해보라고 제안하면 ‘손님 떨어져서 싫다’고 하더라”고 적었다. 또 다른 경찰도 “자신들(무인점포 업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폐쇄회로(CC)TV만 돌려본 뒤 신고하면 그만”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1000원짜리 절도 신고 때문에 정작 긴급하고 중요한 112신고가 후순위로 밀려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우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순 없지만, 시민 안전과 재산권 침해를 지키는 것도 경찰의 책임”이라며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합동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람 기자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 오늘 1심 선고

(삼성물산·제일모직)

재판에 넘겨진지 3년5개월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5개월 만인 5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회장 등은 앞서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2015년 9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저평가하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초점이다.

검찰은 합병 당시 이 회장이 제일모직 주식만 23.2% 보유한 상황에서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높여 합병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 가치가 오른 것과 관련해선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얽혀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과대 계상 규모가 4조5436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삼성 측은 그러나 두 회사 간 합병은 양사의 필요에 따라 이뤄졌고, 거짓 정보를 알리거나 악재를 감춘 적도 없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는 경

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작성됐다고 주장해왔다. 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합병과 관련해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면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중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허정원 기자



포근했던 ‘입춘’ ... 오늘은 전국 눈·비 입춘 4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외투를 벗어 들고 있다. 이날 서울 기온은 12.2도까지 올라 1973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 가장 포근했던 입춘일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5일에는 전국에 많은 양의 비와 눈이 올 것으로 예보했다. [뉴시스]

월북화가 이쾌대·조각가 김윤신 4월 베니스 ‘K아트’ 로 물든다

1935년 함남 원산에서 태어나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목조각가 김윤신(89), 성소수자 이야기를 예술로 엮어온 이강승(46), 국내에서 한동안 ‘금기의 화가’였던 월북 미술가 이쾌대(1913~65), 100원 동전에도 쓰인 이순신 영정을 그린 한국화가 장우성(1912~2005).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술 올림픽’ 베니스 비엔날레가 선택한 한국 미술가들이다.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총감독인 아드리아노 페드로사는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베니스 현지에서 주제전 참여 작가 332명을 발표했다. 발표 중에 이쾌대의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1940년대) 이미지도 보여졌다. 이탈리아 르네상스풍 초상화에 한복 차림으로 팔레트를 든 화가의 자화상. 전시 주제인 ‘누구나 이방인(Foreigners Everywhere)’과 상통하는 작품이다.



오는 4월 20일부터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는 1 이쾌대의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1940년대), 2 이성자의 ‘오작교’(1965), 3 김윤신의 ‘합이합일 분이분일 2022-9’(2022) 등 한국 미술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사진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국제갤러리·리만머핀]



이번 주제는 어디를 가든 이방인을 만날 것이며, 우리 또한 마음 깊은 곳에선 이방인임을 뜻한다.

페드로사 총감독은 “외국인·이민자·실랑미·망명자·난민 예술가들의 작업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며 “이방인의 의미를 확장해 성 정체성으로 박해

받고 소외되는 쿼어 예술가, 독학으로 작업을 시작한 예술가, 민속 예술가 등의 실천도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강보경 차장은 “페드로사가 지난해 4월 한국을 방문해 베니스에 초청할 만한 작가들을 조사해 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 남서

울미술관의 김윤신 개인전, 광주비엔날레 등을 둘러봤다고 한다.

대표적인 ‘현대미술 플랫폼’인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은 1895년부터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4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히토 슈타이얼, 테레사 마술레스, 잉카 쇼니바레, 슈퍼플렉스 등 거장들의 작품도 만나 볼 수 있다.

본전시 외에 국가관별 전시도 풍성하다. 베니스 비엔날레가 ‘미술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1995년 건립된 한국관(Korean Pavilion)은 ‘비디오 아트의 참시자’ 백남준(1932~2006)의 꿈이었다. 1993년 독일관 대표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 그는 베니스 시장을 만나 “한국관에서 남북한 공동 전시를 열자”고 설득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한국관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당시를 회고하며 “백남준은 전남 남대문 시장 산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청와대에 나타났다. 대통령 면담을 끝내고 ‘힘들어 죽겠다’며 박카스를 꺼내 시원하게 들이켜는 모습이 마치 퍼포먼스 같았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관에서는 구정아(57)가 향기를 전시한다. 한국 실랑미·입양아 등의 추억을 모티브로 만든 향기로 한반도 지도를 그려 보인다는 구상이다.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은 바르토크마리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기획으로 재북화가 이성자(1918~2009)의 회고전을, 갤러리현대에는 신성희(1948~2009)의 박음 회화, 엮음 회화 연작을 전시한다.

일찌감치 타지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했으나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여성 작가들이다.

권근영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중 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 장 강 동 호 Don Kang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 잇몸치료 - 치아교정
Implant - Periodontal Surgery -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 치아성형 - 신경치료
Emergency - Veneer Lumineers -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 더더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
▶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우리말 바꾸기

‘늘그막’?, ‘늡으막’?

귀소본능이 동물에게만 있는 현상은 아닌 가 보다. “늘그막에는 고향으로 내려가 뒷밭을 가꾸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 “고향에 집을 지어 형제들과 모여 사는 것이 늡으막의 유일한 꿈이다”와 같이 말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늡어 가는 무렵, 즉 노년을 뜻하는 단어로 위에서와 같이 ‘늘그막’이나 ‘늡으막’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어느 것이 올바른 말일까? ‘늡다’를 활용할 때 ‘늡금’이 아니라 ‘늡음’이라고 하듯 보통 ‘늡다’의 어간인 ‘늡-’을 살려 ‘늡으막’이라고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올바른 표현은 ‘늘그막’이다.

한글맞춤법 제19항에 따르면 어간에 ‘-이, -음’이 아닌 그 외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 다른 품사로 바뀐 말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고 돼 있다.

‘늘그막’은 ‘-이’나 ‘-음’이 접미사로 붙은 형태가 아니므로 ‘늘그막’처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것이 바르다. 시간이나 기한이 매우 늦다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인 ‘느지막하다’가 있다. ‘늘그막’을 떠올려서인지 이 역시 “나는 좀 느즈막하게 일어나는 것을 좋아한다”에서와 같이 ‘느즈막하다’로 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느즈막하다’가 아니라 ‘느지막하다’가 맞는 말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운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고

과학기술 투자해야 미래도 있다



김용원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가 과학에 투자하는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국 존슨 대통령에게 KIST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던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은 국가의 부름과 미래를 위해 미국에서의 좋은 조건을 뒤로하고 귀국해 KIST를 한국 과학기술의 산실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지만 KIST에서는 중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기술들이 나왔다.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학발전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 교육이 백년대계이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끝난 후, 취업이 어려워진 젊은이들이 대학으로 몰렸다. 교육에 대한 지원만은 매년 확대했다. 일본의 기초 과학 연구 투자 중시는 노벨상 수상자 수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술 특화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 여전히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반면 지난해 대한민국 과학계는 ‘과학 카르텔’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소수의 집단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겼고 후폭풍은 견잡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항공우주청을 대통령 산하로 만들 것이라는 공약을 했다. 일본이 10여 년 전부터 총리 산하에 두었던 것처럼 말이다. 일

본은 최근 달에 무인우주선을 착륙시켰다. 그런데,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렸다. 달 착륙 우주선을 준비하던 연구자들이 급어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무 자르듯 삭둑 삭둑되었다. 많은 정부출연 연구소와 대학 지원 연구비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 이상 줄었다고 한다. 특히, 막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첫 발걸음을 시작하려 젊은 인재들의 타격이 크다.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 활동은 물론, 임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출산율과 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저출생과 과학지원의 퇴보는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길로 가는지 볼 보듯 뻔하다. 젊은 과학자를 양성하는데 적지 않는 시간과 투자가 요구되지만 오히려 이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과학정책이 아닐까 싶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애정이 없는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젊은 세대를 양성하지 않는다면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장래도 어두울 것이다. 현 정부가 과학정책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데는 야당의 책임도 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이런 공감대가 있지 않은가.

뛰어난 능력을 갖춘 과학기술 분야 인력들이 중국 기업 등의 사탕발림에 빠지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인력 유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노후대책 등 이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세계적인 기술자의 씨앗은 교육에서 비롯한다. 뛰어난 인재들이 과학자보다 의사의 길을 선택하려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평생을 연구실에서 지내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명감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끊임없는 지원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2025년도에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이 확대돼야 국가의 미래도 있을 것이다. 예산이 줄어든 올해는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연구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랄 뿐이다. 새로운 연구나 진행 중인 연구가 중단된다면 수십 년 후 그 책임은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살며 생각하며

불안한 아이들



김선주
NJ 케어플러스 심리치료사

아침마다 배 혹은 머리가 아프다며 데이케어 가기를 거부한다는 네 살짜리 A. 처음에도 매일 떨어질 때마다 울어, 일을 가야 하는 싱글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일단 엄마와 헤어지고 나면 잘 지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부터 매일 아프다며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혹시 A의 분리불안이 아빠와 관계있는 것은 아닐까 해서 엄마에게 물었다. “아빠는 A를 자주 만나나요?” “원래 매주 토요일 아이를 데려가 일요일 저녁에 데려오기로 되어 있어요.” “아빠가 약속을 잘 지키나요? A는 아빠 만나는 것을 좋아하나요?” “A는 원래 아빠를 많이 좋아했어요. 아빠가 많이 놀아주고 내가 퇴근이 늦을 때도 많이 돌보았거든요.”

“이혼으로 아빠가 집을 나갔을 때 A도 아주 힘들어했겠네요.” “그때는 겨우 두 살이어서 그랬는지 전보다 많이 울고 나한테 매달리기는 했어도, 데이케어도 그런대로 잘 다니고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아빠가 처음에는 약속을 잘 지켜서, 주말에는 아빠와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만나는 주말이 기다려진다고 늘 말하곤 했어요.”

엄마가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보니, 아이가 아침마다 아프기 시작한 때가 아빠와 상관이 있는 거 같네요.”

그녀의 얼굴에서 순간 분노가 느껴졌다. “사실 아이 아빠가 자기 여자친구와 작년에 살림을 합쳤어요. 4살 난 아이가 있는 여자예요. 그러면서 종종 A를 데리러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얼굴에서는 이제 분노가 보였다.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온갖 변명을 하며 A를 데리러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나도 주말이라도 내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일주일 내내 아이에게 매여 있으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아요.”

아빠가 두 시간 거리로 이사를 한 두 달 전부터는 아예 A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고 했다. A도 A

의 엄마도 너무 안쓰러웠다.

부모는 훌륭하든 부족하든, 아이들에게는 온우주가 된다. 그런데 대부분은 부모의 책임과 송고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부모가 된다. 그리고 자녀들의 전 우주가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우주의 한 부분이 무너져버린 어린 A는 많이 불안했을 것이다. 그래도 주말마다 느끼는 아빠의 사랑으로 불안한 우주를 그려 지탱하고 있었을 터였다.

그러다 아빠가 아주 사라져버린 지난 두 달, A의 작은 우주는 슬픔의 안개로 가득 차고, 아빠가 다신 안 올까 봐, 자신을 영영 떠나버렸을까 봐, 불안함과 두려움의 천둥번개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엄마와도 더 떨어지지 않으려는 무의식적 바람이, 이 아이에게 정신적 이유로 인한 두통이나 복통 등의 신체 증상(psychosomatic)들을 나타나게 했다.

A 엄마도 이제 A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매달리는지 이유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엄마의 힘든 감정을 공감해주고 엄마는 엄마대로 지원해 주면서, A의 분리불안을 치료해보기로 했다.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백성호 공인회계사

경력

- H&R Block
- U.S. Department of Commerce
- Hahn & Associates CPA Firm
- James Accounting Service
- (전) 1310라디오 세무상담 진행

- 개인 및 회사 세금보고
- 회사설립(Corporation, LLC.) VA, MD, DC
- 각종 공증업무(Notary Public)
- 사업체(비즈니스) 경영상담 및 각종등록업무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 TAX ID 신청 / Business Plan
- FAFSA / CSS Profile 작성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난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스티브 양
웰스피코 한인융자담당

Q 은퇴자들이 집의 에퀴티를 통한 자금 활용 방법

▶문= 은퇴 후 소멸을 받으면서 생활합니다만 항상 여유자금이 부족해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에퀴티를 활용하여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집의 에퀴티 (집값과 융자 밸런스의 차이)를 활용하여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가장 보편적인 두 가지 방법이 현금 인출 재용자와 Heloc (Home Equity Line of Credit)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현금 인출 재용자의 경우는 지금 이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은퇴하여 수

입 증명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융자 승인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승인을 받더라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일 가능성이 높고, 월 페이먼트 또한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Heloc 경우는 한꺼번에 돈을 꺼내는 융자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라인을 설정하는 것으로 아주 편리한 상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이미 기존 융자가 있다면 이를 건드리지 않고 2차로 담보가 설정됩니다.

하지만 Heloc 역시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은퇴자들은 쉽게 승인을 못 받는 경우가 다반

사입니다. 상당한 규모의 수입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충분한 수입이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집값의 80% 이상까지도 설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0%까지 정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취급하는 은행이 적어 받아내기가 무척 힘든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와 팬데믹 때에도 경험하였듯이, Heloc의 경우 은행이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line의 규모를 줄이거나 동결할 수도 있습니다.

Heloc의 만기는 최장 30년을 주기도

하지만 10년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20년 상환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 페이먼트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현금 인출 재용자와 Heloc의 단점들을 단번에 해결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대안이 Reverse Mortgage를 통해서 Heloc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리버스 모기지 Heloc은 손님이 62세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수입은 재산제와 집보험을 커버할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에퀴티가 충분하다면 적은 소셜 수입도 문제없이 승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동찬
이민/비자 변호사

Q 이민 수속 과정서 유학생으로 신분변경

▶문= 현재 미국 E-2 사업체에서 요리사로 취업하고 있고 그 E-2 사업체가 아닌 다른 스폰서 회사를 통해 비숙련공으로 I-140 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 I-485 영주권 신청서는 문호가 밀려 제출하지 못했다. E-2 사업체는 곧 폐업할 예정이고 나는 유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해서 학업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보통 E-2 비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허용되는 비자이다. 그렇지만 E-2 사업체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E-2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

한 주인과 국적이 같고 E-2 사업체에서 필요한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E-2 종업원 비자 체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E-2 사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그 사업체의 50% 이상을 소유했던 주인이 영주권을 받는다면 그 E-2 신분은 소멸될 수 있다.

귀하는 E-2 신분이 소멸되기 전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비이민 비자가 있는데 비자마다 미국 거주 의도에 관한 조건이 다르다.

이민법 조항 214(b)에 의거하면 H-1B 취업비자 또는 L-1 주재원 비자

는 미국 거주 의도가 허용됨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도 H-1B 또는 L-1 비자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 E-2 비자는 해외 거주지가 없어도 되지만 E-2 신분이 만기 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반면 이민법 조항 101(a)(15)(F)에 의거하면 F-1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와 해외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2023년 12월에 수정된 이민국 지침서에 의하면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또는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계류 중이거나 승인된 상태라도 유학생은 학업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난다

는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학업이 끝난 후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도가 있고 지금은 해외 거주지가 없더라도 미국 입국 전 해외 거주지가 있었다면 해외 거주지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부모와 함께 살았던 해외 거주지라도 괜찮다.

결론적으로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민국에 제출되었더라도 E-2 신분에서 F-1 유학생 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은 가능하다.

반년 전부터 F-1 유학생 신분변경을 속성으로 신청할 수 있어 30일 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채희동
상표/특허/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Q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역위원회 소송

▶문=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소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 일반적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기밀 등 지식 재산권 침해 소송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법원 소송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을 위해 무역위원회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소송을 통한 지식 재산권 침해 소송은 대체로 1년에서 1.5년 정도 소요됩니다. 소장을 제출한 후 보

통 30일 이내에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판사와 staff attorney가 배정되어 소송이 진행되며 증거 개시와 청문회 이후에 판사가 예비 결정을 내리고 이후 무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과 달리 무역위원회 소송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수입금지 조치나 판매 금지 명령으로 제한되며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무

역위원회 소송의 장점은 소송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무역위원회가 지식 재산권 법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며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복잡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 소송의 경우 소환장과 소장의 피고에 대한 서비스를 원고가 직접 처리해야 하며, 해외에 위치한 피고에 대한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무역위원회 소송에서는 무역위원회에서 직접 서비스를 처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위원회 소송에서는 좀 더 넓은 범위의 피

고들을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위원회 소송에서는 'domestic industry'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식 재산권과 관련하여 보호되어야 할 국내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원 소송뿐 아니라 무역위원회 소송도 고려하여 전체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핫딜의 통큰 세일혜택! 이번달에도 받아주세요~
2월의 핫딜세일
 H O T D E A L S U P E R S A L E



aerosilver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일월 전자파 ZERO, 효율적인 분리난방, 7중 안전장치
 3세대 카본(탄소)열선으로 5분 안에 전체를 따뜻하게!
ILWOUL 에어로실버 탄소매트

Single (71x35.4") \$149 Double (71x55.1") \$179



Kpurity
Purple
Bamboo Salt

ARTISAN BAMBOO SALT
도해 용융죽염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신제품 런칭기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건강에 효과

무형문화유산 한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도해 용융 자죽염 분말 & 고체

45g \$19.46 240g \$89.96 1kg \$284.96



무료
배송
Free Shipping

숲의 편안함, 강인&건강함을 담은 새로운 차원의 프라이팬
 프라이팬, 궁중팬, 편수냄비(28cm, 20cm) + 유리뚜껑(20cm)
DORCO MYCHEF 후라이팬 세트

3D 양각 Leaf 패턴이 기름을 골고루 퍼지게! ~~\$139~~ \$119



덕화명란

핫딜 입점기념
고급 에코백 증정

무료
배송
Free Shipping

JB튜브 2개+그때그대로 2개+백명란 2개+숙성고 2개

400년 한반도 명란의 역사를 이어가는 덕화명란
명장의 레시피 덕화명란 실속형 패키지

덕화명란을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실속형 패키지 \$103.92



무료
배송
Free Shipping

By Make Up Artist *정샘물*

타고난 결을 빛내는 스킨누더쿠션으로 본연의 아름다움을!
 모이스처 핏 텍스처, 클리어 커버링, 내추럴 글로우 & 래스팅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리필 포함 (7가지 셰이드) 미백, 주름개선 효과 \$39.99



무료
배송
Free Shipping

[4가지맛x2개씩 8개] 오리지날, 카라멜, 커피, 메이플맛

보리건빵에 수제시럽 코팅해 목메임없이 바삭하게 즐겨요!
여수야미 마약건빵 포켓용 4가지맛 2개씩

한번 손대면 멈출 수 없는 즐거움 \$20



QR코드 찍고 핫딜에서 편하게 주문하세요

핫딜

미주최대 한인
인터넷 홀쇼핑

213.368.2611

가게/매장 구입은 불가능하니, PC나 셀폰으로 QR코드 찍고,
 온라인 Hotdeal.Koreadaily.com에서 구입해 주세요.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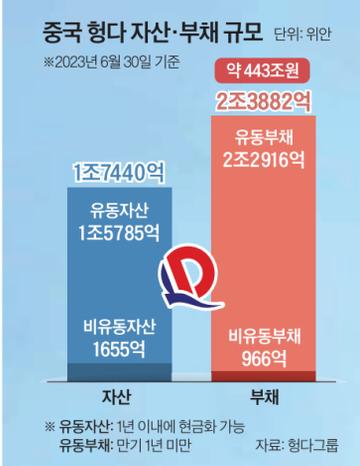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칭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부채 443조원 헝다, 빚잔치 시작되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시작이었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청산 명령을 받았다. 중국 부동산 위기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헝다 청산을 요청하는 채권단 청원을 승인했다. 이번 소송은 헝다 계열사에 8억6250만 홍콩달러(약 1475억원)를 투자한 톱샤인글로벌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 2022년 6월 처음 제기했다.

한때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회사였던 헝다는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 2021년 말 역외 채권에서 처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했다. 헝다가 현재까지 가진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900억 위안)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개발업체로 평가받는다. 2년 가까이 끌어온 소송에서 헝다는 파산을 막기 위해 채권단과 자구책을 협의하면서 청산 심리를 7차례 연장했다. 하지만

홍콩법원 청산명령...주식 거래금지 중국 언론 "해외 법인 청산돼도 헝다그룹 국내사업 영향은 제한적" 부동산 위기는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자구책 마련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결국 헝다의 발목을 잡았다.

해외 채권단과 함께 협의한 230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부채 개선 계획은 지난해 9월 헝다 창업자인 쉬자이 회장이 범죄 연루 혐의로 구속되면서 무산됐다. 채권단은 지난달 이뤄진 법원 심리에서도 청산 청구를 반대하며 헝다를 지지했다. 하지만 최근 채권단과 헝다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청산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 재판을 맡은 린다찬 판사는 "법원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날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 직후 홍콩 증시에서 헝다 주식은 거래 정지됐다. 이후 임시 청산인이 헝다 경영권을 인수하고 부채 구조조정 및 자산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청산 절차에는 난관이 남았다.

일각에서는 청산 절차가 쉽지 않고, 청산 가능성이 이미 알려진 점을 들어 이번 홍콩 법원의 결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권신문은 "중국헝다와 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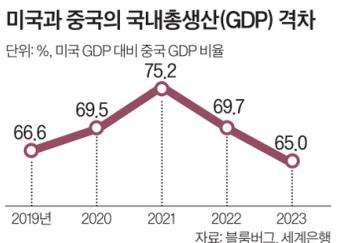
그룹의 국내 및 해외 자회사는 독립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해외 법인(중국헝다)이 청산되더라도 그룹의 국내 주요 사업은 일정기간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청산 명령이 중국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 판단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과 관련 산업 침체가 수년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지난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켄트리가든)이 디폴트를 선언했고, 원양집단·완다 등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도 디폴트 및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서다. 이달 초에는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중국 자산관리회사 증즈그룹이 파산 처리됐다.

헝다의 추락이 상징하듯 중국의 경제 규모도 쪼그라들고 있다.

김남준·김경희 기자

▶ 2면 '헝다'로 이어집니다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한미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움의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정성웅 보험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아름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상당 현영)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n@rowepllc.com Top 100 법정변호사
알릭스 부시 Alexander Buch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abush@rowepllc.com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703-887-1037

치킨플레이션 실감한 프랜차이즈 업계, 해외로 눈 돌린다

(치킨+인플레이션)

치킨값 2020년 대비 20% 이상 올라 소비자, 냉동 등 간편식 소비 늘려 BBQ, 미국 27곳 등 700여 점포 운영 bhc·교촌·굽네는 아시아 시장 공략



1. 지난 12일 문을 연 제너시스BBQ의 테네시주 클래식빌점. 2. 지난 27일 문을 연 bhc치킨의 'bhc 태극 센트럴월드점'



해외로 나가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GENESIS BBQ 제너시스 BBQ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 57개국 700여 개 점포
KYOCHON 교촌 에프앤비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7개국 74개 점포
bhc 그룹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5개국 12개 점포

‘1인 1닭’ 치킨 주문은 이제 옛말일까. 지난해부터 이어진 ‘치킨플레이션(치킨 인플레이션)’의 여파가 배달 치킨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주요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서자 소비자가 배달 대신 냉동 치킨 등 대체재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물가 상승으로 가맹점 수익 악화를 고민하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외 신시장 개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치킨의 생활물가지수는 120.13으로 조사됐다. 기준연도(2020년)보다 치킨값이 20% 이상 올랐다는 뜻이다. 1년 전과 비교해도 4% 이상 비싸다. 지난해 12월 bhc가 치킨값을 인상하며 주요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일제히 2만 원 대로 올라섰다. 업체는 “주문·배달 수수료와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상승으로 가맹점 수익이 악화해 부득이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치킨 주문도 부담스러워지자 소비자는 비싼 배달 치킨 대신 가정 내 냉동·냉장육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가금육 소비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가금육 연간 추정소비량은 닭고기 16.5kg으로 2020년 조사 대비 0.74kg 늘었다. 가정 내 닭고기 배달 소비량은 3.29kg(2020년)에서 3.1kg으로 줄어든 반면 닭고기 간편식 소비량은 1.91kg(2020년)에서 2.19kg으로 늘어났기 때

문이다. 지난해 3분기 치킨전문점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는 76.34로 전분기(79.72)보다 감소했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매출액·고객수·종업원수 등의 성장, 100 미만이면 위축을 의미한다. 치킨전문점 경기동향지수는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등 유사음식점(86.62)의 수치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외식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 치킨도 냉동 제품 수요가 늘고 있

다”며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는 닭튀김 제품은 배달 치킨의 절반 가격 수준이어서 인기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성장에 한계를 느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시장을 키우기 위해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가맹점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제너시스BBQ. 2003년 중국 상하이점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베트남 등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

이다. 지난 12일엔 미국 50개 주 중 27번째로 테네시주에 매장을 열었다. 새로 문을 연 테네시주 클래식빌점은 약 167㎡(48평), 총 40석 규모로 유동인구가 많은 주택가에 있다. BBQ 관계자는 “올해 미국 내 모든 주에 매장을 열고 파나마·코스타리카 등 중남미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태극 진출을 준비해온 bhc그룹은 지난해 27일 방콕의 복합쇼핑몰 ‘센트럴월드’에 신규 매장을 열었다. 애플, 나이키 등 500여개 글로벌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어 2030대 유동 인구가 많은 변화가다. bhc 센트럴월드점은 약 179㎡(54평), 총 90석 규모로 연인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해 패밀리 레스토랑 분위기로 연출했다. 지난해 하반기 말레이시아에 3개 매장을 열고 대만 진출을 위해 현지 외식전문기업과 프랜차이즈 협약을 하는 등 아시아 시장에 힘을 쏟고 있다. K-푸드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반영해 떡볶이 등 치킨과 어울리는 한식 메뉴를 함께 출시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대만에 3개 매장을 열었고 굽네도 홍콩·마카오·일본·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해외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김경미 기자

▶ 1면 ‘형다’에서 이어집니다

지난달 25일 블룸버그통신은 지난해 미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6.3%로 중국(4.6%)을 크게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실질 GDP로는 지난해 미국이 2.5%, 중국이 5.2% 성장했지만 뜯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블룸버그와 세계은행(WB) 통계에 따르면 미국 달러 시장 환율로 환산한 2021년 중국 GDP는 미국 GDP의 75.2%로 미국 경제 규모에 바짝 다가섰다. 하지만 2022년 69.7%로 뒷걸음질 치더니 지난해에는 65%까지 하락했다. 주요 2개국(G2) 경제전쟁에서 중국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연세홍 청와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은 최근 세미나에서 “향후 10년간 중·미 간 국력 격차는 양국간 경쟁 심화 속에서 좁아지는 게 아니라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정혁의 마켓나우

‘ESG’라는 명칭 피하고 그 이점은 살려라

월가에서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가 사라지고 있다.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 중 실적 발표에서 ESG를 언급한 기업이 2021년 4분기에 155개였으나 2023년 2분기엔 61개에 불과했다. ESG 투자도 비슷한 형국이다. 기업의 ESG 성과에 기반을 둔 투자를 내세웠던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ESG 펀드들아에 없애거나 펀드 이름에서 ESG를 지우고 있다. ESG 전도사로 불리며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ESG 경영을 요구하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래리 핑크마저 앞으로 ESG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정점에 달했

던 ESG는 미국 정계를 중심으로 ‘반(反)워크(anti-woke)’ 운동이 확산하면서 금기어가 돼가고 있다. 이 운동은 환경·인종·성별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진보 진영의 슬로건 ‘워크’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격이다. 최근엔 행동주의 투자자 빌 애크먼이 하버드대를 상대로 반워크 공세를 펼쳐 총장의 사퇴를 끌어냈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워크 마인드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쓰며 워크를 전염병 취급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ESG의 확산이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이념을 경영과 투자 결정에 개입시켜 미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다고 주장한다. ESG



경영과 투자를 진보적 목표 달성을 위해 주주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수 진영의 공세가 거세지자 재계와 투자업계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ESG를 드러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ESG라는 용어는 정치화되면서 소멸의 위기에 처했지만, 그 개념은 생존할 것이 분명하다. ESG는 재무적 성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쟁 논리를 따르는 기업이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이념을 배제한 학술 연구와 실무에서 ESG는 기업의 이익 증대는

물론 위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금융위기와 코로나 19 등 위기의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원력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ESG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런던비즈니스스쿨의 알렉스 에드먼즈 교수는 ‘ESG의 종말’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논문에서 ESG를 특별 대우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ESG는 CEO의 자질·기업문화·혁신 역량 등과 같이 기업가치 창출을 위한 무형자산의 하나일 뿐이지 승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ESG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기대가 과도한 마케팅·규제·투자 그리고 정치화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는 중이다. 역설적이게도 ESG의 존재감이 줄어들수록 ESG의 순기능이 지속될 수 있다.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교수

구독 문의 703-281-9660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맨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절세·자금 증식 배가 일석이조 혜택

투자성 연금

세금은 늘 부담된다. 2023년의 달력은 넘어갔지만 마무리가 되려면 세금이 남았다. 소득이 높은 직장이나 매출이 좋은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특히 신경 쓰이는 문제이기도 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민이지만 막연히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절세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 자산 위치와 연금의 용도에 대해 알아본다.

▶자산 위치

자산 위치라는 표현은 자주 못 들었을 수 있다. 자산 배치나 분산 등의 표현은 투자와 관련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지만 자산 위치는 상대적으로 낯설다. 자산 위치는 쉽게 말해 어떤 종류의 계좌에 돈을 넣고 불릴 것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저축이나 투자를 할 때는 자금을 담아 두는 계좌가 있다.

자산 위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발생한 수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 계좌와 있고, 그렇지 않은 계좌가 있다. 수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내야 하는 계좌를 Taxable 계좌라고 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연기하며 가는 계좌를 Tax-Deferred 계좌라고 한다. 어떤 계좌에 자금을 넣고 불릴 것인가는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다른 유형의 계좌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은 물론, 나중의 효율적인 세금관리의 많은 부분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나 개인용 은퇴계좌인 IRA 등은 세금공제와 함께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연기되는 혜택을 갖고 있다.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IRA의 경우 직장 플랜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을 수 있고, 더 다양한 투자 옵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직장 플랜은 개인 플랜보다 적당할 수 있는 한도가 더 높다는 것과 회사가 주는 추가 혜택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이다. 공제는 없지만 자라나는



투자성 연금은 세무 효율성과 자금 증식 효과를 배가시키는 혜택을 볼 수 있다.

투자계좌 유형 결정하는 자산 위치적 접근 필요 면세·세금 유예 혜택 등 세무 효율성 제고 중요 IOVA, 보험과 관련된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연기되는 계좌로는 개인연금 상품이 있을 수 있다.

IRA나 401(k)를 이와 같은 연금상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는 이미 IRA 등 은퇴계좌가 세금을 연기해주는 혜택을 갖고 있어 연금이 따로 더해주는 혜택은 없는 셈이다. 어쨌든 연금은 자산 위치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지만, 특히 투자성 연금은 세제 혜택을 가진 브로커리지 투자계좌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는 수익에 대해 매년 세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연금을 활용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증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금을 낸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연금이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일반 투자의 세무 비효율성과 연금의 용도

투자할 때 세무상 비효율적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매년 수익에 대해 세금

을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는 투자수익도 있고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너무 자주 양도소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뮤추얼 펀드에서처럼 번 것 없이 세금만 발생시킬 수도 있다.

‘턴오버’ 비율이 높은 펀드는 특히 이런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주식 등에서 배당이 나올 경우도 역시 일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세금부담을 가중하기도 한다.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런 세무상의 비효율성이 있다면 수익에 대해 세금이 연기되는 연금과 같은 계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투자성 연금 안에서 투자하고 버는 수익은 인출할 때까지는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돼 증식 효과도 배가해 줄 것이다.

원할 경우 평생 보장 연금이나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을 키워주는 추가 특약조항들도 가질 수 있다. 이런 특약조항들은 추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투자성 연금의 수수료가 걸림돌이라면 이런 수수료가 사실상 없는 순수 투자성 연금(IOVA)이 적절할 것이다. 이들은 자문사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내부의 세무상 비효율성 해결

전통적인 분산 포트폴리오는 60%가 주식형 자산에 40%가 채권형 자산에 배치되곤 한다. 여기서 60%의 주식형 자산은 세무상 비효율적일 수 있다. 자산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이 자주 발생할 수 있고, 배당이 나올 수도 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 해도 자산 유형에 따라 일반 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자산의 ‘턴오버’ 비율은 평균 52%, 채권형 자산의 턴오버 비율은 125%에 달한다. 투자자산의 턴오버 비율은 높을수록 그만큼 자주 사고파는 거래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부동산 관련 투자자산의 턴오버 비율도 70%로 높은 편이고, 이른바 대체자산의 턴오버 비율은 평균 173%에 달하고 있다.

일반 투자계좌에서 이들 자산 유형을 포함한 포트폴리오가 운용되고 있다면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세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셈이다. 연금은 이런 턴오버에 따른 세무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연금 인출 시 세금

IRA 등을 연금으로 할 경우 인출하면 전액이 일반 소득으로 간주돼 일반 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는 적절한 자금이 세금공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적인 연금에 들어간 자금이 나올 때는 원금 이상으로 늘어나 자금에 대해서만 일반 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미 세금을 낸 자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연기됐던 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수익이 먼저 나온다고 간주되고, 원금 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출이 끝나면 나머지는 원금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평소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재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실은 상당한 혜택이다. 예를 들어 실질 세율을 20%로만 봐도 10만 달러면 2만 달러가 세금으로 나가지 않고, 재투자돼 자금증식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이 금액이 주는 복리효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된다. 자금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효율성뿐 아니라 자금증식 효과를 최대한 누리게 해주는 셈이다.

이렇게 어떤 계좌를 활용하든 저축하고 투자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산의 위치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위치에서 내 재산을 증식하는가에 따라 자금과 나중의 세무가 달라진다. 어떻게 분산투자할 것인가의 실은 어디에 놓고 투자할 것인가의 다음 순서라고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세무 관리용 투자를 고려해 보자.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p>식당 담은 자리 5500 SF, 렌트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p>	<p>식당 담은 자리 4500 SF 차이나타운 부근</p>	<p>식당 담은 자리 7800 SF 워싱턴 디씨 버지니아 애쉬번</p>	<p>식당 자리 제과점, 건물 매매 0.5 에이커, 3500 SF 매매가 5백만불 버지니아 맥클린</p>	<p>상가 비엔나, 버지니아 상가, 연 순수익 52만불 8백만불</p>
<p>태권도장 자리 2700 SF 버지니아 폴스처치</p>	<p>태권도장 자리 2900 SF 버지니아 애쉬번</p>	<p>사무실 고급 사무실 자리 렌트 타이슨스 코너 갤러리아 바로 옆 최고급 컨퍼런스룸 경비원 24시간, 8300 SF.</p>	<p>창고 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 렌트 9000 SF, 버지니아 헌든</p>	<p>주택 콘도, 방2개, 화장실2개 메트로 근처, 웨그맨 옆 차고1개 있습니다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p>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www.dwellwashington.com

투자의 경제학



김세주
Kadence Advisors, LLC

주가와 기업가치

투자 결정 전 자산 보존과 수익 중 선택
리스크 정도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

예측했던 경기침체와 주가 하락이 현실화되지 않았던 2023년은 투자자들에게 조언 역할을 하는 펀드매니저나 어드바이저들에게는 힘들었던 한해였을 것이다.

GDP 대비 주가(시가총액) 총액 비율(버핏 지수), 주가 대비 매출 비율, 각종 경제 지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설명하며 주가가 과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논리적인 설명은 처음에는 설득력이 있지만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 같은 주가 앞에선 어느 시점부터 투자자의 귀에는 공허한 말의 되풀이밖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측한 전망이 6개월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고도 한다. 물론 6개월 사이에는 경제 지표나 기업수익 변화에 따라 끊임 없이 수정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예측한 전망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출현하지 않으면 시거나 소 프트랜딩과 하드랜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도착점에 대한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AI의 붐과 더불어 가장 핫 한 주식의 하나인 엔비디아(Nvidia)는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기는 하나 주가(시가총액) 대비 매출 비율(Price to Sales:P/S)이 33 정도 한다.

챗GPT로 유명한 OpenAI 지분의 49%를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도 13 정도다.

주가 매출 비율만으로 기업의 가치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엔 부족하지만 주가 매출 비율이 이 정도 되면 자산 보호를 제일의 목표로 하는 어드바이저의 입장과 투자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투자자와의 사이에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참고로 애플의 P/S는 8 정도, 구글은 6.5, 아마존은 3, 테슬라는 6 정도다. 주가 매출비율만 가지고 주가의 고/저를 평가할 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펄(PE Ratio) 성장률이 포함된 PEG Ratio, 해당 업계 등 비교할 부분이 많지만 그렇다 해도 어느 정도의 적정치를 벗어나서 위험 부담이 커진다면 매수를 추천하기에는 어려울 것

이다. 업계가 달라 직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전기 자동차의 인기로 배터리 수요 급증을 기대함에 따라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던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업계는 리튬 가격이 최고치 대비 80% 정도가 하락하며 해당 업체 주가의 동반 하락을 면치 못했다.

투자란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것이 맞지만, 투자 대상을 결정하기 전에 자산 보존과 투자 수익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먼저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곳의 비중을 줄이고 낮은 곳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포트폴리오 편성을 함으로써 나에게 알맞은, 마음 편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재정설계



클라루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

401(k) 용자 장점

계좌의 50% 혹은 최대 5만불 중 적은 금액
대출 신청이 간편하고 초기 인출 벌금 없이

개인연금 IRA와는 달리 401(k) 연금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 용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에서 용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401(k) 플랜안의 용자규정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 처음 회사가 401(k) 셋업 당시 용자에 관련한 조항을 어떤 조건으로 플랜에 넣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마다 용자조건에 대한 추가규정 및 요구 사항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일부 고용주는 401(k)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401(k)를 통한 용자를 원한다면 먼저 본인 회사의 401(k) 용자 규정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순서일 것이다.

오늘은 401(k) 플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용자

및 상환 조건들에 대해 함께 알아 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401(k)의 용자는 개인이 각자의 401(k)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50%, 또는 최대 5만 달러 가운데 둘 중 적은 금액으로 용자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가 특별한 재난상황이라 선포한 경우라면 일시적으로 금액이 높아 질 수도 있다.

많은 경우 용자의 횟수는 12개월 내에 1회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약 2회 이상의 용자를 허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도금액 안에서만 용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01(k) 대출은 다른 대출과는 다르게 돈을 다른 용자 기간에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401(k) 계좌에서 인출하는 형식으로 대출받게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초기인출 벌금이나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 용자와 다른 점은 용자 신청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부채나 신용점수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출 신청이 간편하며, 일반용자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본인의 401(k) 계좌로 지불되는 것이기에 이 또한 큰 장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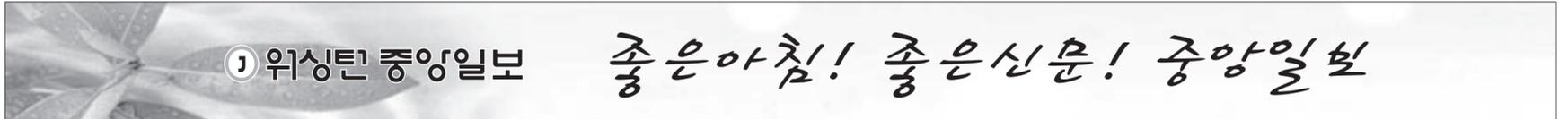
401(k) 플랜을 통해 용자받은 대출은 일반적으로 5년 안에 다시 되갚아야 한다. 최소한 분기별로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갚아야 하는데,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먼저 본인 거주용 목적으로 용자를 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상환기간을 둘 수 있다.

반면, 이와 별도로 일반적인 휴직의 경우 최대 1년 기간동안 용자 상환을 유예해 줄 수 있지만, 휴직 종료후에는 남은 기간동안 월 상환 금액을 조정하거나, 상환되지 않은 부분을 일시불로 상환해서 5년 상환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401(k) 용자는 세금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정해진 기간, 상환 금액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채무불이행(Default)으로 간주되고, 해당 연도의 인출로 처리되어 개인의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따라서 디폴트를 피하려면 정해진 기간과 금액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근무하는 회사에서 401(k) 용자를 받고, 대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회사를 이직하게 될 경우 전체 대출 잔액은 되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본인이 원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이든, 회사가 권고사직을 한 경우이든 동일한 룰이 적용된다.

그만 둔 회사에서 401(k) 용자를 받은 경우라면, 잔액은 해당연도 개인 세금보고일까지 되갚으면 된다. 각 회사마다 401(k) 플랜의 정책이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HR 담당자나 401(k) 관리자 혹은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Advertisement for Intelisystems featuring a couple looking surprised, a smartphone with the Intelisystems logo, and a large speech bubble with the YouTube logo and text: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The ad lists 5 reasons for using YouTube ads 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www.Intelisystems.com, 703-337-0123, and various marketing services like Amazon Store Marketing, Google Smart Shopping, etc.

돈과 권력 모두 장악한 'KGB 자본주의'

물리제국주의자의 아주 반가운 변신



푸틴의 사람들
캐서린 벨턴 지음
박종서 옮김
열린책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는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가 열린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연설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황이 지지부진한데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의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낸 지은이는 이 책에 그런 푸틴의 인맥과 이들이 벌여온 '흑역사'를 담았다. 무명의 푸틴이 옛 소련이 무너지면서 생긴 러시아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권력을 움켜쥐고 이를 바탕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며 측근과 국민을 통제해왔는지 다룬다.

푸틴은 옛 소련 시절 모두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증오했던 권력기관 국가보안위원회(KGB)에서 '치노브니크(공직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지은이에 따르면 이 사실은 현재의 크렘린을 이해하는 열쇠다. 실제로 푸틴 정권은 '실로비키(힘 있는 사람, 제복을 입은 사람)'로 불리는 전직 KGB 출신으로 이뤄진 '이너 서클'이 움직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권력과 돈이란 톱니바퀴로 이뤄진 이 거대 '패밀리'는 자국은 물론 수많은 러시아 부호가 이주한 영국 등 해외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푸틴의 눈밖에 나자 2011년 가족과 함께 영국 런던으로 몸을 피한 올리가 르히(러시아 과두재벌) 세르게이 푸가체프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그는 푸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활약하고, 한때 '푸틴의 금고지기'로 불릴 정도로

이너 서클의 중요한 축이었다는 인물이다.

지은이가 푸가체프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옛 소련이라는 배가 난파하기 직전 가장 먼저 낚은 공산주의라는 배를 버리고 자본주의라는 새 배로 갈아탄 집단은 체제 수호를 담당했던 KGB 요원들이었다. 이들은 소련 시절부터 범죄조직과 손잡고 석유·귀금속·생활용품을 독점하고 검은돈을 축적했다. 이를 통해 소련이 사라진 러시아라는 공간에서 권력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했으며 돈으로 법률 등 서방 시스템을 한껏 활용하며 국내외에서 계속 활개쳐왔다. 지은이는 푸틴과 수하들이 만든 이런 체제를 'KGB 자본주의'로 부른다.

이렇게 형성된 푸틴의 인너 서클 인사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소비 등에서 '모든 게 준비된 도시'로 통하는 런던을 선호했다. 지은이에 따르면 푸틴의 측근들은 런던에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친척이나 내연녀를 뒀으며 주말마다 이 도시를 찾아 현금다발을 뿌렸다. 그들의 배우자는 런던의 유명한 펜트하우스에 거주했고, 아이들

은 유명 사립학교에 다녔다. 런던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다. 서방의 영향력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던 러시아 '애국자'도 자신의 딸을 런던에 살게 했다. 영국의 수도가 '런던그라드'로 불리는 이유다.

런던그라드에는 또 다른 용도가 있다. 푸틴의 눈밖에 난 사람을 철저하게 몰락시키는 '잔혹극' 연출이다. 실로비키들은 굳이 모스크바의 비공개 법정으로 끌고 오지 않아도 '배신자'를 이곳에서 괴롭히고 피를 말할 수 있다. 2013년 런던 근교 별장 욕실에서 평소 쓰던 스카프가 목에 감긴 채 발견된 올리가르히 보리스 베레좁스키 사건에서도 의문의 '냄새'가 난다. 신원 미상의 지문이 발견됐지만 런던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푸가체프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푸틴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수십억 달러의 재산을 빼앗겼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푸가체프가 러시아중앙은행의 자산 7억 달러를 빼돌렸으며 영국 법률회사를 내세워 런던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푸가체프는 소송에 더해 폭발물 등

으로 신변 위협까지 받아, 공포의 '라스 토츠키(붉을 알리는 첫 제비)'가 왔다고 여겼다. 그는 영국 법원이 자신을 러시아로 보낼까봐, 자국민을 러시아로 송환하지 않는 프랑스로 옮겨 국적을 얻고 철통 같은 경비시스템과 수많은 경호원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지은이는 수많은 증언과 정황을 바탕으로, 푸틴과 그 수하들이 정부에서 얻은 지위와 권력을 바탕으로 경제를 통제하면서 사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옛 소련의 반자본주의적이고 반부르주아적인 원칙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푸가체프는 이들을 두고 "호모 소비에티쿠스"와 "광포한 자본주의자" 사이에서 태어난 혼종"이라고 표현한다.

푸틴 일파는 옛 소련 몰락 뒤 러시아가 겪은 1990년대의 혼란 속에서, 돈을 벌려고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 시대를 만든 셈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면에는 이처럼 전직 KGB 요원들이 세운 '국가 속의 은밀한 국가'와 그들의 검은 자금이 자리 잡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전에는 2020년 세계 5위의 경제력을 보유했던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금은 13위 수준이다. 악명의 전직 러시아 고위 공직자는 지은이에게 "KGB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들이 아는 것이라면 흑색 작전을 수행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현재진행형 비극이다.

지은이는 그럼에도 러시아에선 목숨을 걸고 푸틴과 측근들의 비리를 추적하고 폭로하는 전문적인 탐사보도 기자들이 활약하고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

채인택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김상욱 지음
바다출판사

"사람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평범하면서도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는 명제다. 한편으로는 과학이기도 하다. 양자물리학을 연구하는 김상욱 경희대 교수가 지은 이 책은 "죽음이란 원자의 소멸이 아니라 원자의 재배열이다. 내가 죽어도 내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흩어져 다른 것의 일부가 된다. 인간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름다운 은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는 원자를 통해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설교한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관해, 우주에 관해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네 인생에 관해 알고 싶어한다. 그런데 이를 보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김상욱 교수는 스스로 고백하듯이 한때 '물리제국주의자'였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 문학이나 철학, 예술은 필요 없고 물리학만 완전히 통달한다면 세상 모든 이치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과학자였다. 그러나 살다 보니 물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원자의 세계를 다루는 물리를 넘어 원자들의 결합인 분자를 아는 데 필요한 화학, 분자로 구성된 생물의 원리를 연구하는 생명과학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인간을 안다고 하더라도, 인간 사회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 물리학자로서 세상을 전부 이해하고 싶었지만, 결국 도달한 결론은 세상을 이해하려면 물리를 넘어 다양한 학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김 교수는 물리제국주의자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 세상을 포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운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영감을 받은 그의 이 책에서 하늘은 우주와 법칙, 바람은 시간과 공간, 별은 물질과 에너지를 나타낸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인 인간을 더했다.

이제 과학은 21세기 시민들이 무장해야 할 필수품이 돼 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은 대다수 사람에게서 어려운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전문가로서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이 책의 지은이는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과학을 일상용어로 고쳐서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과학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하나의 틀 안에서 이해해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다.

한경환 기자

책꽂이



꽃 지기 전에(권용석·노지향 지음, 파란북)=성찰·나눔으로 행복을 만드는 흥천의 '행복공장'을 지은 부부의 수필집. 감사·변호사로, 행복공장 공장장으로 암과 싸우며 짧은 생애를 살다간 권용석이 생전 남긴 진솔한 사랑의 글마다 연극인의 삶을 사는 아내 노지향이 뒷이야기를 달았다. 애처롭기보다는 환하고 따뜻하다. 애도보다는 희망의 책.



한국 반도체 슈퍼 올 전략(전병서 지음, 경향BP)=반도체는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패권전쟁의 전략 물자'가 됐다. 저자는 미국의 쥐꼬리만한 보조금에 목숨을 걸기보다 D램 시장의 제패에 목숨을 걸어야, 미·중이 절대 무시 못 할 슈퍼 올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설파한다. 한국 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11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편향된 기술문화는 어떻게 작동해왔는가(홍남희 지음, 컬처북)=인터넷 역사는 기술의 진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저자는 인터넷 대중화 이후 포르노그래피 규제 담론을 통해 한국 특유의 편향적인 기술 문화가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관습적인 여성 재현의 방식이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폭력으로 이어져 온 역사적 맥락을 밀도 있게 그려낸다.



젠더퀴어(마이아 코베이브 지음, 이현 옮김, 학이시습)=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자신을 논바이너리·에이섹슈얼로 정체화한 성소수자인 저자의 성장기와 커밍아웃까지의 과정을 담은 그래픽노블. 미국에서는 2019년 출간돼 이듬해 미국도서관협회에서 상을 받는 한편 외설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퇴출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스킨케어와 보톡스를 한번에!



- ✓ Board Certified NP가 직접 시술
- ✓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
- ✓ 미백과 보습! 안쪽부터 차오르는 촉촉함
- ✓ Licensed Esthetician, Cosmetologist, and Massage Therapist.
- ✓ 가름해 보이고 싶은 분, 주름에 신경쓰이는 분



Xeomin Botox
안전하고 빠른 제오민

*제오민 보톡스는 FDA의 승인을 받은 특효성 프리마틴 보톡스로서, 불필요한 복합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내성의 우려가 거의 없어, 반복 시술에 효과적입니다.

美人 MI-IN (301) 279-6960
BEAUTY 2000A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난 뮤지컬계 돈키호테, 포기 안 했더니 미국도 감동”

전 세계가 K팝에 열광한다지만 노래를 들으며 감동할 일은 잘 없다. 세련된 공산품같은 노래에 중독은 될지언정 감동은 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영혼이 느껴지지 않아서다. 최근 종영한 JTBC ‘싱어게인’ 시즌3에 대국민 문자투표 60여만 통이 몰리고 콘서트 티켓이 10분 만에 동 난 건 우리가 아직 인간적인 노래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1·2위를 차지한 ‘무명가수’ 홍이삭(58호)과 소수빈(49호)의 무대에 늘 감동했던 것도 기타 하나 달랑 메고 노래하는 이들의 정직한 목소리가 너무도 순수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외치는 음악 같다’는 누군가의 표현이 적확하다.

사실 파이널은 긴장감이 없었다. 미리 공개된 온라인 투표와 동영상 조회수에서 워낙 둘의 인기가 압도적이었다. 막판 음이탈을 한 홍이삭이 심사위원 평가에서 앞선 소수빈을 문자투표로 뒤집는 역전극이 있었을 뿐. “결국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 음악이 좋아졌는지가 중요한 거 같아요. 심사위원 점수는 잠시 기분

이 좋을 뿐, 지나고 나면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소)

일찌감치 라이벌 구도 형성 화제물이
“끝이 안 보이다가 이제 다 왔다 싶으니까 살짝 안일하고 교만해졌어요. 실수하는 순간 그 실수를 하기까지 빌드업된 사소한 결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더군요. 난 아직 멀었구나, 한참 더 해야 된다 느꼈습니다.(웃음)”(홍)

오히려 일찌감치 두 사람이 맞붙은 2라운드와 5라운드가 하이라이트였다. 라이벌 구도인 둘의 한치 양보 없는 진검승부에 시청자들은 손에 땀을 쥐었지만, 막상 이들에게 전우애가 싹텄다. “5라운드 상대로 형을 지목했을 때 저를 응원하는 분들은 엄청 뭐라 했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어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하니 쉽게 넘어갈 수 없었고,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어야 배울 게 있잖아요. 실제로 많이 배웠어요. 결국 저서 패자부활전에 갔는데, 음악 인생에서 가장 진귀한 경험을 했죠. 그 순간에 너무 집중해서 뭐가든 썬 느낌을 받았는데, 나중에 봐도 그때 표정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소)

홍이삭, 선교사 부모따라 해외 생활 부정교합 수술 후원받아 실력 회복 “선물 받은 성대로 1위, 열심히 할 것”

찾기란 쉽지 않다. 흥대 인디씬도 사라져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니 닥치는 대로 활동해 왔지만, “어느 순간 베스트가 없더라”는 게 소수빈의 말이다. “겁이 많아서 오디션 프로에 못 나갔어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방송에 비치는 게 두려워서 적게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점점 리스너가 줄어드는 걸 보며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됐죠. 다행히 ‘싱어게인’이 좋은 기회가 돼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다 생각해요.”(소)

“좀 슬픈 게 중간이 없거든요.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과 명성의 지점은 있는데 중간이 결국 오디션 프로인가 봐요. 100석, 200석짜리 공연장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가 없으니까요. 로드맵도 없이 페스티벌이나 행사를 뛰다 보면 내가 성장하고 있단 걸 알 수 없죠. 안개가 끼어서 내가 보이지 않았어요.”(홍)

서 아직 더 할 게 있단 것도 알게 됐어요.”(소)

“나만의 결이 없다”지만 홍이삭은 ‘자연주의’로 통한다. 서늘한 가을바람처럼 불어와 광활한 대지를 깨끗이 씻어내는 소나기 창법으로 몽클한 서라운드 감동을 만들어낸다.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파푸아뉴기니의 대자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영향이 크다. “타이어 안에 진짜 튼튼한 고무 튜브가 들어 있거든요. 강에서 그걸 타고 한 4시간 동안 내려가면 폭포도 만나고 급류도 있고 진짜 재밌어요. 그렇게 맨발로 뛰어다니며 놀았던 것들이 정서적으로 기반이 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브라스밴드 하고 록밴드 형들 동경하면서 음악이 얼마나 재밌는지 깨달았어요.”(홍)

지금도 소년같은 외모의 소수빈은 솜사탕처럼 포근하고 살랑이는 봄바람처럼 촉각적인 음색이 귀를 간지럽힌다. 그런데 자기 음악에 대한 확신이 단단하다. 어릴 적 장난치다 오른쪽 검지가 절단되고도 독학으로 기타를 마스터 할 수 있었던 것도 애초에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서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장롱 타고 올라가다가 손가락이 끼어서 잘렸어요.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이긴 했죠. 근데 애초에 기타를 치기 전에 다쳐서 익숙해요. 손가락이 짧아서 기타 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도 안 해봤죠. 어릴 땐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나의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소)

가느라 집안 기둥뿌리도 뽑혀 있었고요. 막다른 길에서 후원을 받아 수술을 할 수 있었죠. 그 덕에 음역대와 발성도 좋아졌고, 잘생겼다는 말도 서른 지나 처음 들어봤어요.(웃음) 사실 지금의 얼굴과 성대가 제 것이라 생각 안 해요. 선물로 받았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죠.”(홍)

경연 과정에서 이들은 ‘나다운 음악’에 대한 갈등을 얘기했었다. 주로 남의 노래를 불렀던 ‘싱어게인’에서 100% ‘나다운 음악’을 들려주진 못했을 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이유다. “49호는 49호답게 할 겁니다. ‘쉬운 가수’를 내걸고 나온 만큼, 나만 어려우면 되고 여러분에게는 쉬운 가수로 남으려고요. 아직 못 보여준 게 많아요. 재즈, 블루스도 잘하고 웅장한 것도 좋아하거든요. 경연은 차력소가 아니니까 안 했을 뿐이죠.”(소)

“전 좀 차력소를 한 것 같아요.(웃음) 매라운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을 만큼 쏟아 부었거든요. 이제 온전히 새로운 곡들에 내 이야기를 담는 게 속제가 되겠죠.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홍)



싱어게인3 우승자 홍이삭(왼쪽)과 준우승자 소수빈. [사진 JTBC]



유주현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채틀리 타운홈	버크 타운홈	센터빌 싱글홈	COMING SOON
 PENDING	 PENDING	 PENDING	 PENDING
\$560,000	\$549,000	\$690,000	헤이마켓 싱글홈 방4, 화4.5 3600sf 업그레이드 중
방3, 화3.5, 차고1, End Unit 2009년산 사우스라이딩	방4, 화3.5, 2 Assigned 뉴키친, 뉴윈도우 굿 로케이션	방3, 화3.5, 차고2 새지붕, 새HVAC, New Flooring 뒷마당 넓은 집, Fully Fenced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업그레이드 굿 로케이션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연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1960년 이후 64년 만의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영화처럼 짜릿하고 극적인 승부를 펼치고 있다. 끝날 것 같으면서도 좀처럼 죽지 않고 부활한다고 해서 '좀비 축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아시안컵 8강에 오르기까지 치른 5경기에서 11골을 기록 중이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5골을 정규 시간 종료 이후에 기록했다. 후반 추가 시간 또는 연장전에 골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다. 그 가운데 3골은 지고 있던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동점 골이었고, 1골은 재역전 골이었다. 연장전에서도 1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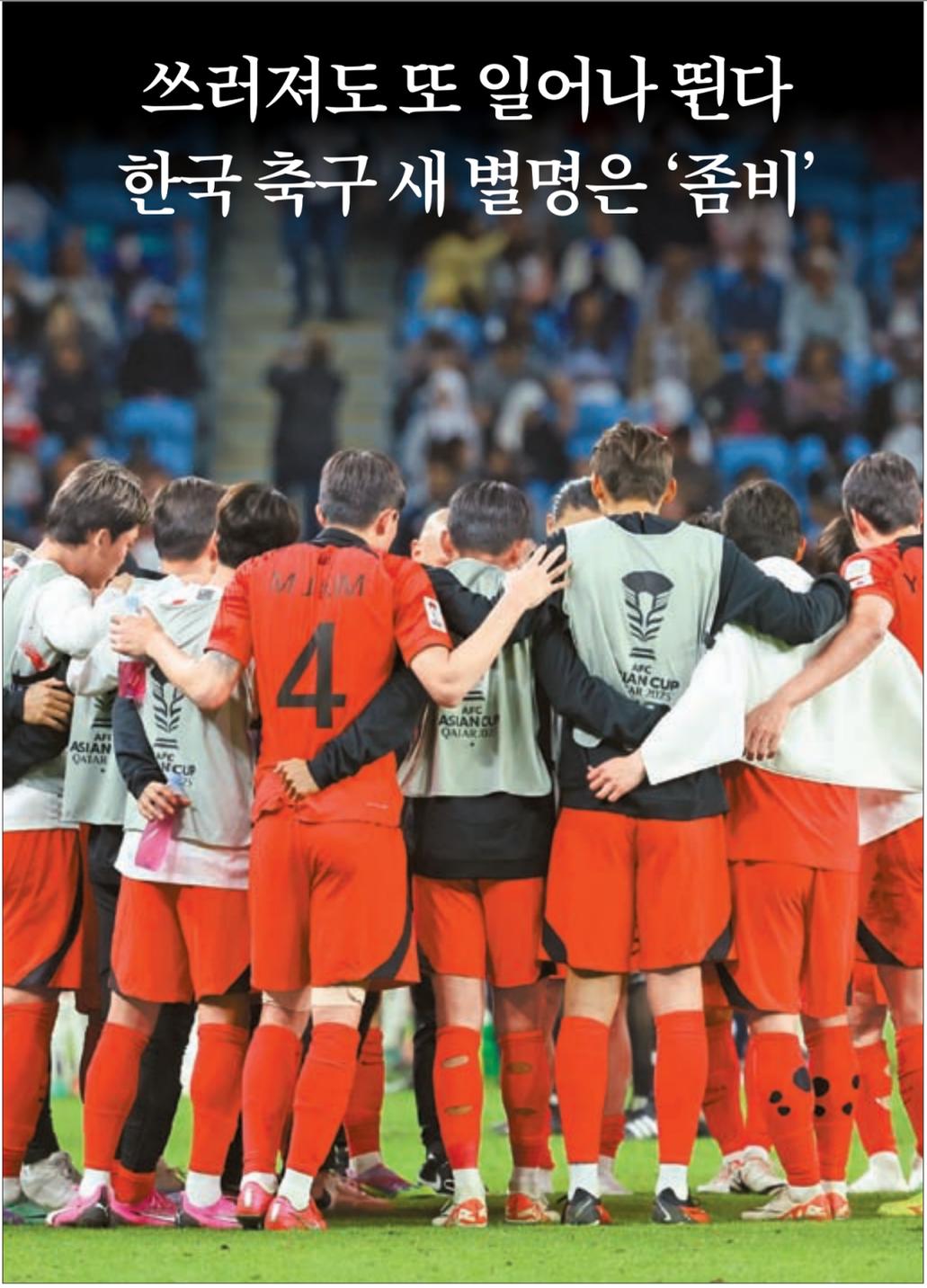
클린스만호는 지난달 20일 요르단과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1-2로 뒤진 후반 추가시간 1분에 나온 요르단의 자책골로 2-2로 비겼다. 손흥민이 왼

대표팀 대회 5경기서 11골 기록
후반 추가시간·연장서만 5골 넣어
16·8강 선취골 내주고도 역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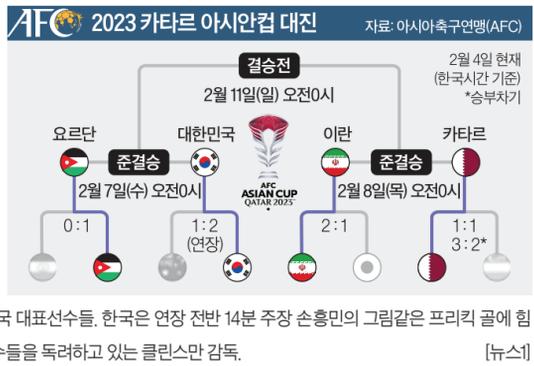
쪽에서 넘겨준 공을 황인범(즈베즈다)이 슈팅했는데, 요르단 수비수 야잔 알 아랍 발에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한국은 또 지난달 25일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선 2-2로 팽팽히 맞선 후반 추가시간 4분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켰다. 1-2로 뒤지다가 동점을 만든 데 이어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재역전 골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가 경기 종료 직전 동점 골을 넣어 경기는 3-3 무승부로 끝났다.

지난달 31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전에서도 이런 흐름은 계속됐다. 한국은 0-1로 끌려가다 후반 추가시간 9분 조규성(미트윌란)이 헤딩으로 동점 골을 터뜨렸다. 연장전으로 승부를 몰고 간 한국은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를 4-2로 물리쳤다.

지난 3일 호주와의 16강전도 사우디전의 판박이였다. 0-1로 뒤져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시간 6분,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에게 파울을 유도해 얻어낸



3일 호주와의 아시안컵 8강전에서 연장전을 앞두고 승리를 다짐하는 한국 대표선수들. 한국은 연장 전반 14분 주장 손흥민의 그림같은 프리킥 골에 힘입어 2-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아래 사진은 경기 중 한국대표팀 선수들을 독려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 [뉴스]



페널티킥을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성공시켜 극적으로 1-1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열린 연장 전반 14분엔 손흥민이 프리킥으로 결승 골을 터뜨린 덕분에 한국은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드라마틱한 행보에 대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팬들도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손흥민·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강인(파리생제르맹) 등 역대 최강으로 꼽히는 월드컵레드급 선수들로 대표팀을 꾸렸는데도 전·후반 90분 이내에 승부를 마무리 짓지 못해 추가시간과 연장전, 때로는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는 상황에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가시밭길을 걸으면서도 기어 이 골을 넣고 다음 라운드에 올라선다는 점에서 "스릴 만점"이라거나 "어지간한 드라마나 영화보다 재밌다"는 등의 긍정적 반응도 나온다. 클린스만 감독

팬들 "경기력 불만족" "스릴 만점"
클린스만 지도력 놓고 여론 엇갈려
한국 우승확률 36%, 전체 1위 올라

독은 축구대표팀 지난해 부임 당시 "3골을 먹더라도 4골을 넣어 이기는 축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컵 무대에서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팬들은 "클린스만은 축구 감독이 아니라 봉준호 감독급 거장 영화감독"이라거나 "죽지 않는 '좀비 축구'의 창시자"라는 우스갯소리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16강 토너먼트 진출 이후 잇따라 명승부를 펼치는 과정에서 한국 축구의 승리 확률도 반등했다. 축구 통계 전문업체 옵타는 4강 대진이 확정된 4일 "수퍼컴퓨터의 분석 결과 한국이 4강에서 요르단을 제압하고 결승에 오를 확률이 6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우승 확률을 전체 1위인 36%로 올렸다.

일본을 제압한 이란이 30.9%로 2위를 차지했다. 개최국 카타르는 16.0%, 한국의 4강전 상대 요르단은 9.5%로 각각 전망했다.

도하(카타르)=피주영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진료 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철틀러 지역]

서울 다녀온 증거였던 우미관, 첫 한국영화 상영한 단성사

한국 영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거점은 종로였다. 2019년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 기념 '제57회 영화의 날'이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 '영화의 날'(10월 27일, 1962년 제정)과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은 1919년 10월 27일 종로 모동(종로 3가) 단성사에서 상연한 활동연쇄극 '의리적 구토'를 기준으로 한다.

"조선의 활동 연쇄극이 없어서 항상 유감히 여기던 바 신과 활동사진을 경성의 제일 좋은 명승지에서 박아 흥행할 작정으로, 본인이 5000원의 거액을 내어 본 월 상순부터 경성 내 좋은 곳에서 촬영하고 오는 27일부터 본 단성사에서 봉절 개관"(매일신보 1919.10.26.)

당시의 광고문이다. '의리적 구토(義理的 仇討)'는 단성사 사주 박승필(1875~1932)이 출자하고 신과극단 신과좌(新劇座)를 이끌던 김도산(1891~1921)이 각본, 연출해 종로 단성사에서 개봉한 우리나라 최초의 활동사진 연쇄극(連鎖劇)이다. 연쇄극은 키노 드라마(kino drama), 즉 연극과 영화를 함께 보여주는 양식이다. 연극 무대 중에 스크린을 설치해 야외 장면을 필름으로 촬영해 보여주는 것이다. '의리적 구토'는 서울의 명승지(청량리·노랑진·남대문·장충단·한강)와 기차·전차·자동차·철교 등을 배경으로 한 활극을 촬영한 뒤 연극 도중에 스크린으로 띄워 관객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의리적 구토' 주인공 송산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핍박을 받으며 자란다. 재산을 탐내는 계모의 계략으로 송산은 집을 나와 죽산과 매초를 만나 의형제를 맺는다. 계모는 송산을 제거하려고 나서며 둘의 갈등이 깊어지고 마침내 송산은 계모 일당을 물리치고 가문을 지키는다는 줄거리다.

북촌은 조선인, 남촌은 일본인 중심 극장 1895년 프랑스 파리에서 선보인 활동사진 시네마토그래프가 상품화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1896년 중국 상하이에, 1897년 일본 고베에 전해졌다. 조선에도 활동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일

미 유니버설 영화 틀었던 우미관
독점계약 공급, 김두한 무대로 유명
한국서 발생영화 처음 상영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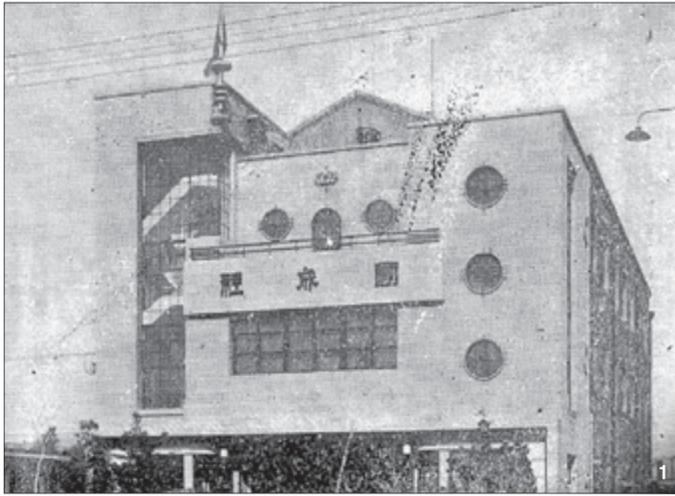
연극 공연도 병행한 조선극장
춘향전 만들면서 조선 영화 부흥기
신과극·가무·기에 등 정기 공연

본 거류민 극장과 미국인을 통해 들어왔다.

1901년 황성신문에 '사람들이 활동사진을 보고 신기함에 정신이 팔려 입을 다물지 못하고 참으로 묘하다고 찬탄하여 마지않는다'는 기사가 나온다. 광고로 직접 확인되는 것은 1903년 6월 23일 황성신문에 동대문 한성전기회사 기계장에서 밤 8시부터 10시까지 동화 10편을 받고 활동사진을 상영한다는 내용이다. 매일 밤 인산인해를 이뤄 수익금이 백여 원에 이르렀다. 상영한 활동사진은 극적인 구성이 없는, 서양의 도시 풍경과 빼어난 경치를 담은 파노라마였다. 그럼에도 이채롭고 모던한 풍경과 신기하게 '움직이는 사진(motion picture)' 그 자체, '불거리로서의 영화'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열광했던 것이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일본인 이주가 많아지며 일본인 상권과 주거지 및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주로 청계천 남쪽인 오늘의 충무로·명동·을지로 인근에 자리를 잡았다. 1907년에 이미 가부키 공연을 위한 극장, 경성가부키좌(歌舞伎座)가 지금 신세계백화점 근처에 들어섰다.

이어 남촌에 여러 일본인 극장이 생겼다. 남촌의 일본인 극장에서는 일본 전통 예능, 가부키, 신과극 등을 공연하는 한편, 활동사진도 상영했다. 일본인 거리였던 남촌에는 경성고등연예관(1910년), 대정관(1912년), 황금관(1913년), 유락관(1915년), 경룡관(1921년), 중앙관(1922년) 등이 있었다. 유락관(有樂館)은 조선의 제극극장을 표방한 활동사진관으로 1919년 기라카칸(喜樂館)으로 이름을 바꾸어 해방 직전까지 대표적인 일본인 영화관으로 운영되었다. 일본군 주둔지였던 용산에도 용산좌(龍山座), 사쿠라자(櫻座)



1 1907년 설립된 단성사. 1918년 활동사진관으로 재개관했다. 2 임관택 감독이 2019년 10월 '단성사 영화역사관 개관식'에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사진 서울역사박물관]

등이 설립 운영되었다. 조선인들의 거리였던 북촌의 경우, 극장은 종로에 밀집했다. 단성사(1907년 설립, 1918년 활동사진관으로 재개관), 우미관(1912년), 조선극장(1922년)이 유명했다. 탑골공원 좌측에는 신과극 공연으로 유명했던 연흥사(1907~1915), 각종 공연과 집회의 장소였던 장안사(1908~1915) 등이 있었다. 을지로 2가 동양척식주식회사 근처에 최초의 활동사진 전용관인 '경성고등연예관'이 일본인에 의해 1910년에 설립됐다. 언어와 문화, 전통 장르 차이로 조선인 극장과 일본인 극장이 구분되던 당시에 경성고등연예관은 특이하게도 조선인 관객과 일본인 관객을 동시에 수용하였다. 일본인 변사와 조선인 변사가 번갈아 가며 영화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필름을 영사했다.

'장화홍련전' 한국인 첫 극영화 촬영 성공 1911년 경성고등연예관에서 소요가 일어났는데, 일본인 유도선수와 서양인 권투선수가 시합을 하는 영화를 보

며 조선인 관객은 서양인 권투선수를 응원하고, 일본인 관객은 일본인 유도 선수를 응원하다가 극장 안에서 조선인 관객과 일본인 관객이 서로 물건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으며 싸우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관객들은 극장 안에서 같은 언어와 풍속, 역사를 공유하는 종족 정체성을 확인하는 체험을 쌓아 가고 있었다. 극장은 정치·사회·문화·종족적 취향과 의식을 형성하는 공간이기도 했던 셈이다.

1912년 이후 조선인 관객을 위한 활동사진관 우미관이 종로에 들어서고, 일본인 관객을 위한 활동사진관 다이쇼칸(大正館, 1912~1935)과 고가네칸(黄金館, 1913~해방 후 국도극장)이 남촌 을지로 4가에 세워졌다.

우미관(優美館)은 1912년 종로 관철동에 설립된 영화관으로서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했다. 우미관은 1916년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특약을 맺고 유니버설 영화를 독점 상영해 '명금', '카추샤', '몬테크리스토 백작', '파우스트' 등을 상연했다. "우미관 구경 안

하고 서울 다녀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우미관은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우미관 주변 관철동에 음식점과 선술집 등이 밀집해 있어서 많은 인파가 붐볐다. 주먹으로 유명한 김두한은 우미관을 중심으로 활동한 바 있다. '말하는 활동사진, 관철동 우미관에 처음 상영'(동아일보 1926.2.28.)했다는 건 영화사적으로 주목할 사실이다. 한국에서 무성영화가 아닌 발생영화(토키, talkie)를 처음 상영한 곳이 우미관이었다.

조선극장은 1922년 10월 종로 인사동 입구에 영화상설관으로 개관했다. 1923년 조선극장 주인 일본인 하야가와(早川孤舟)가 '춘향전'을 만들면서 조선에서 영화 제작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자극을 받은 단성사 사주 박승필은 단성사에 촬영부를 설치하여 '장화홍련전'을 제작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한국 극영화 촬영·현상·편집 성공이었다. 조선극장에서는 영화 상영 외에도 신과극, 신극, 가무, 기예가 공연되었다. 특히 연극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갖추어서 토월회의 정기공연, 극예술연구회 공연이 조선극장에서 올려졌다. 1937년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다.

단성사(團成社)는 한국 영화의 태생지로 불리는 곳이다. 단성사는 서울의 실업가 지명근, 주수영 등이 공동 출자해서 1907년 종로 모동(종로 3가)에 설립한 극장으로 각종 연회를 공연했다. 단성사의 경영권과 소유권은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를 오가는 유여극절을 겪었다. 단성사는 1913~14년 서양식 외관과 일본극장식 실내구조를 갖춘 1000석 규모로 신축했다. 1918년 광무대(光武臺) 경영자 박승필이 단성사를 인수하여 신축하고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상설 영화관으로 재탄생했다.

박승필은 광무대를 통해 전통 연회를 공연하는 동시에 영화를 상연하는 조선 엔터테인먼트 중심 인물이 되었다. 박승필의 출자로 김도산 등 한국인들에 의해 연쇄극 '의리적 구토'가 만들어져서 단성사에서 1919년 10월 27일 개봉됨으로써 훗날 '한국영화 제1호'로 정해지고, 10월 27일이 '영화의 날'로 제정된 것이다.

정우택 성균관대 국문학과 교수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투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영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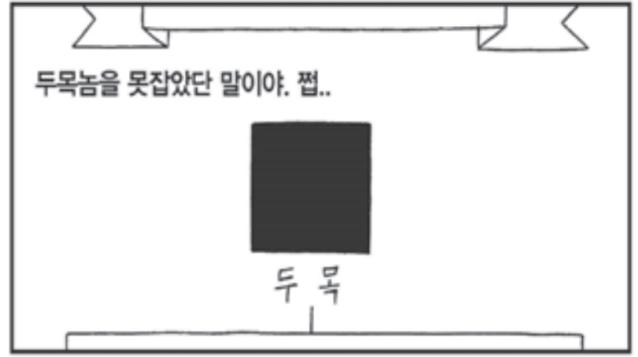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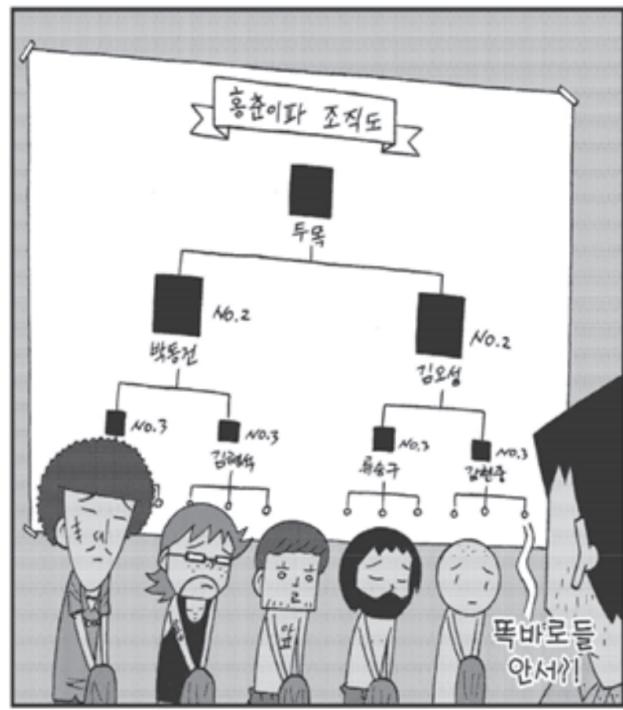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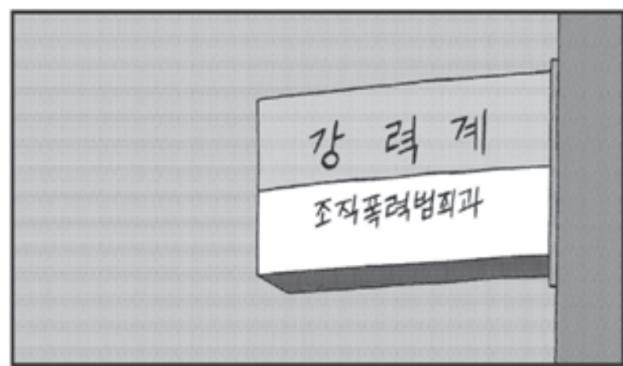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조폭**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2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직원 구함

센터빌, 찬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보험 사무실
직원모집

페어팩스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오래동안 같이 일하실
직원을 찾습니다.

▶ 풀/파트타임 가능
▶ 영어 가능하신 분
▶ 보험 라이센스 소지자 환영
▶ 401k, 건강보험, PTO

www.uniwfm.com
이메일
vaoffice.uni@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코웨이 DC 지점
직원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센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양생활안내 Classified

중양일보 2024년 2월 5일 월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폴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력자도 성실하게 할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번호사 사무직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폴/파트타임 이종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탐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자베타, 매릴랜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코웨이 DC 지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디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애난데일 부동산회사-리셉션리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스폰가능
ceo@hanmipost.com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폴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폴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물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종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회계사 사무실 구인(Annandale)
이력서: k54627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 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멀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파트타임 & 풀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력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력자도 성실하게 할 분
luvacct1986@gmail.com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davidmarkslaw.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서비스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디/페이셜 마사지사
월도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넛시간대 함께 일 할 여자분 구합니다.
▶301-609-0432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폴/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종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리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러브랜드 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종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vehandhomehealth.com

MD Germantown]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풀/파트)
본사는 MD Germantown에 위치한
중형치과 기공사로 사세 확장을 위해 사무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해갈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Accounting, Inventory, Order,
Customer Care 등 업무에 지장이 없으신분
*영어 회화에 문제가 없으신분
*풀/파트타임 가능 *경력자 우대 합니다.
이메일 : confidential.hr@gmail.com
전화문의 : 240-477-5683

덴탈 어시스턴트 / 프론트 데스크 구함
경력자 우대 초보자도 환영
p : 410-480-5234/ 지역 : 엘리콧시티

닥터오피스 프론트 직원 구함
폴타임, 한국어/영어, 컴퓨터스킬
703-642-0900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폴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rcr@gmail.com

병원에서 일하실분
Catonsville/ 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 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Receptionist (Full 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페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 PM-8:30 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휴선 (10 AM-
4PM) 한국어/영어 이종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력,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션리스트 구함
이종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핏: 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추레이닝, 유경력자 우대.
이력서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rog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치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jiang.sterling@gmail.com

점포 인터넷서술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센터빌 Honest Grill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스프링필드(VA) 막창도둑 코린안 bbq
서버, 헤드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 1127

Breakfast 주중/주말, F/P(\$20+tips/hr)
server 6am-2pm DC, CUA metro 근처
703-785-8763

애난데일 토속촌에서 웨치레스 구함
703-333-3400

MD 포도맥 지역 뉴일식당
스키맨, 서버, 캐쉬어 풀/파트타임 구함
703-405-7272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 모집
*College Park Area, MD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핸디맨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POS 지원/
Pricing Analyst/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종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간단한 자기소개서는
Email: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알링턴에 새로 오픈한 gute Leute 커피샵
바리스타 구인/바리스타 되고싶은 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518-879-7841

첼트리 Cafe Moment
금/토/일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Chantilly Cafe Moment looking for
Fri, Sat, Sun afternoon part time.
703-376-8090
thecafemoment@gmail.com

캐시어 구함. 볼티모어 지역. 높은페이 델리
443-621-4951

(구직) 허바치체프 파트타임 가능
443-620-4420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분
영주권스폰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703-473-6022

매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703-717-2596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FOR SALE

Air Compressor
20 HP (22 volt)
\$1,800

Air Compressor
5 HP (22 volt)
\$1,000

* Air Compressor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58-6384

① 워싱턴 중양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양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분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루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아난데일 헤어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폴, 파티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내에 룸 렌트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세탁/얼터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어에서 수선 및 개수해 하실분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 하실분(파타임) 엘리콧시티 지역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터레이션 구합니다 (폴·파트타임) 스테포드·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분 파타임, 폴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 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분 폴스처지 지역
703-577-5866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계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HD Plus Construction 커머셜 캐비닛 및 밀웍 제작에 능한 팀원 모집 -드로잉 이해가능, 코리안 카운터탑 경험자 -높은페이, 평균이상 근무시간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배네트,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마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Mclean/Tysons, VA 아이들 하고 bus 도와 주고, 간단한 cooking, 운전필수. Part time
718-309-4969

피아노 주일예배(11시) 반주봉사할분 웨어팩스 코스트코 근처 브래더로드.
202-271-2726

버크 태권도 사범/보조사범(파/폴타임), 방과후 선생님 구합니다
571-243-7027 (문자)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베이비시터 구함 Vienna, 주5일, 1-6pm, 아기 픽업가능한분, 성실한분
213- 839- 3735

밤10시부터 청소 하실분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버지니아 센터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틀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밤청소 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하실분 파티타임 남여1명 장소 칼레자픽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 하실분 을 모집합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 703-505-5211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우드브릿지타운홈, 방3, 화2½, 1 Car Gagage, Hardwood Floors, 4 Levels, Updated Kitchen, Large Deck, Walkout Basement. \$2,500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장실 2.5 차고 2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합니다
연락처 :301-385-3535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센터빌타운홈 H마트 앞. 월 \$3,400 방3, 화3, 차고2, 마루. 바로 입주가능
703-401-9997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클리프톤, H마트 3분, 싱글홈 렌트. 방4, 화4, 전층 리모델. \$3,900 (12/10 이사가능)
571-215-3070(문자요망)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 페어팩스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타운홈, 방3, 화2.5, 전체세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에쉬번 방 4, 화 3, 벽돌 타운홈. 학군 좋음 2015년 집, 쇼핑몰/267에서 1분거리
202-743-8886

벤드메트로 옆타운 홈 \$2,850 방3, 화 2 1/2, 차고 2, 새 부엌, 새 냉장고, 전체세 페인트
703-489-6926

<콘도 렌트>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페어팩스 웨그망 걸어서 5분. \$1,150 개인 방, 화장실, 보안 보장 빛 잘들어오는 모던 스타일 콘도
703-762-6759

즉시 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 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 이사 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

애난데일 H마트 인근 콘도 렌트 방1. 욕실 1. 발코니. 파킹 2 11월초 입주가능, \$1,500
703-268-8669(처음은 문자문의 요함)

<방 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 1개 렌트
▶703-470-5238

애난데일 방 렌트. 방에 욕실, 키친, 침대, 책상, 냉장고 완비, 개인 주차자리도 있음
571-232-6052

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 출입문 별도, 간단취사, 금연자
571-243-6295

노스포토막, NIST 근처 싱글홈 반 지하 출입문 별도,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빨래방. 직장여성구함, 인터넷포함
301-520-2916

센터빌 싱글홈 베이스먼트 방2+Full Bath
571-830-4053

페어팩스 지역 GMU 걸어서 1분거리 2층방 단독화장실 주방 주차편리

347-421-7894

단독주택 2층 큰방/주차/인터넷/ 가구완비/ 냉장고 별도/ 샤워별도/29번과 198번만 나는지점, Burtonsville, MD 20866
240-413-2738

애난데일 중심 싱글홈 베이스먼트, 워크아웃
703-606-0700

폴스처지 싱글홈 지하룸메이트 \$450 즉시 입주, 작장남자분 환영
571-224-3383

MD 저먼타운 싱글 2층방 1개, 침대, 가구 완비, 뉴그랜드마트 옆, 인터넷(유료)
301-538-1438

웨어옥스몰 근처 방 Rent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mr. 권 (571)525-4220

페어팩스 50번도로 66도로사이 비엔나 전철역 근처 방 렌트, 남자 직장인 환영
571- 530-7322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 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애난데일 노바대학공원 옆 싱글홈 가구, 침대, 나무마루 등 모든 것이 갖추어진 깨끗하고 조용한 집, 방 1개/2개 (욕실 별도), 학생, 직장인 환영
문의: 703-336-3283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애난데일 H마트 뒷 콘도 화장실 딸린 큰 방
703-300-8669

애난데일 H마트 옆, 방 1개 렌트 인터넷 및 가구 일체, 유료 \$800 직장 다니는 분 환영, 12월 중순 입주
703-350-1986

센터빌 H마트 옆 조용한 반 지하, 주차 사용
571-332-4559(문자 주세요)

조용한 로던(페어팩스) 주택가 -워크아웃 지하전체 방3개 -넓은 리빙룸, 유프(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출입문 별도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었음
571-488-5860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7분, 조지메이슨 7분 남학생 환영.
571-554-4224(문자 요망)

방 1개, 전기포함 \$600, Elkridge, MD
631-834-2679 / 410-245-2702

애난데일 예촌 앞 방 2개 렌트 직장인, 학생 취사 가능
703-622-2033

페어옥스 병원 옆 단독주택 지하 방 1 세탁기 완비, 침구 및 탁상 Rt. 50, 29, 286 (Fairfax Pkwy) 가까운 곳 남자, 금연, 11월 21일 입주가능
T. 571-236-0834 (Mrs. Jin)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만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2월 5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애난데일 홈디포뒤방1렌트
출입문 별도, 주차장 있음
571-237-341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커머셜콘도 800sq 렌트합니다.
571-237-3411

애난데일 한강뒤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주차장.
703-966-9937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애난데일 콘도 \$200,000
방1, 화1, 745s.f., 계단없는 1층, 부엌과
화장실 리모델. 넓은 리빙룸. New Siding
Door. 풀데지식당 옆 동네, 교통편리.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250,000
방2, 화장실1, 리모델한콘도, 938s.f.
넓은 리빙룸, 남향 밝은집, 나무마루, 새부엌,
새화장실, Elevator, New Windows,
New HV/AC, H-Mart 근처
▶703-477-3114

프레드릭스버그 타운홈 \$399,900
2019년 새단지새집. 1 Car Garage,
End Unit. 방3, 화장실3½, 탁트인 구조,
Walkout Basement, 밝고 환한집.
넓은 Deck, 파킹장 많으며 큰 호수가 있음.
▶703-477-3114

맥클린 콘도 \$352,000
방1, 화장실1. 962s.f. Many Upgrades,
Newr Appliances, Newr HV/AC,
Tyson's Corner 가까이, 밝고 환한콘도.
Washer & Dryer.
▶703-477-3114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부동산/상업용 매매〉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매릴랜드 로렐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 571-421-0863

For Sale: Coin Laundry and Commercial
Building/ Location: Richmond, VA
Sale Price: \$2,300,000
Monthly Sales: \$22,000
Coin laundromat, retail store, carwash
포함된 상업용 건물 매매입니다.
연락처: jnrcoin777@gmail.com

매릴랜드 중심에 9년째 운영중인
Nail Salon Supply Wholesale bussiness
주인은퇴로 매도 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
open 부부 운영하기에 적합. 연매상 \$1,2M,
의욕과 능력에 따라 확장 가능
연락처 (443)812-3958 Mr. 조

뷰티스플라이, 매릴랜드 자리잡힌
고급 흑인지역, SBA 가능

확실한 분 상담 703-401-9997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분,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DC. Liquor Store 매매 : \$260,000
연매상 :\$780,000. 6일. 용자. 부부운영
571-242-3736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오전 7시- 오후 3시 / 주 매상 4천
렌트 \$525(전기로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애난데일 마트안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424-6451

버지니아에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

상업용 건물/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수 있는 곳 건물 팝니다. 문자요망
703-946-9901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분들 연락 바람.
703-582-8689

세탁소매매 Upper marlboro, 좋은장소
703-850-3714

마켓내 성업중인 한식·중식 식당할실분!
703-638-8876

기타

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썰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일요일 아침 9시 버크레이크 헬트 C에서.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상 환영.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
리 풀 옵션 절반 가격로 판매
443-355-7700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새해(2024년) 달력 판매(벽걸이)
1Box= 100부 / 강아지그림. 가격: \$110.
연락: 571-242-3736

해피라이딩 (bike riding)
평일 오후 / 도로와 휴길 / Wakefield park
703-945-2991 (message)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피민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유화, 아크릴 개인 레슨
아동, 성인,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전공, 오래된 경력 / 개인 레슨시간 조율.
703-489-6567

〈중고품/기타 매매〉

2012 Hyundai Santa Fe 6 Cylinder
SUV Silver (현대산타페 은색) 82,000 mile
Good condition \$9,500
703-350-1986

Moving Sale 가격파괴 세일
안마의자 \$950 (Reg. \$5500), 운동기구,
자개장, 냉장고, TV 및 여러 가지 가정용품 등
이사관계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판매
240-274-4945

2006 ACURA MDX SPORT WG
23000 Miles \$5000.00
703-624-5506

Used 정품 혼마 드라이버, 아이언셋을 좋은
가격에 팝니다.
드라이버 : 베레소 4 스타, Regular, 9.5도
아이언셋 : 베레소 3 스타, Regular, 5-11,
SW (8개)
301-526-7000 로 전화 or 문자 주세요.

쥬키 미싱 d11 8700 세탁소용
햄 미싱 USA, 4인용식탁 매매
240-475-4166

혼마 남성용 골프채
- 2 스타(02) 아이언 7pec
- 3 스타(03) 드라이버 9.5" 우드, 유틸리티
- 4 스타(08) 드라이버 / 3번 우드
- 4 스타(07) 5번 우드
- 4 스타(07) 아이언 8pec
410-913-8215(문자 주세요)

닛산 로그 2011년 Good
블랙, 191k, Asis 판매가 900불
443-956-9105 (문자 먼저)

골프채 싸게 팝니다. 남성용 혼마 LB 280
703-300-8669

여자 3스타 혼마 세트 2여행용 가방 1카트
가격조정가능 문자요망
240 500 0035

남성골프채 DRIVE
1) 일제 KAMUI ASIRI 고반발 Gold
10도 / R \$ 600
2) PXG 0811x+PROTO
10.5도 / R \$ 170
301-717-7960

물만 필요한 저렴한 낚시대 세트 \$10
연한베이지바탕 디자인 그라나이트 2'x2'
\$45 / 2개 \$80
703-268-8669

은퇴로 덴탈랩 장비와 재료 총 \$500
240-423-9968

집안에 모아둔 남녀 금, 다이아반지,
시계, 목걸이 및 팔찌 등 사들분. 문자요망
240-718-8050

〈건축/페인트/마루〉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My Roofers 영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서 워싱턴 한인 전문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L & 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석〉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티밍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워 워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페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H, P, 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
▶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중앙유리
사워더,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사워더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유리

사위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중앙유리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사위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아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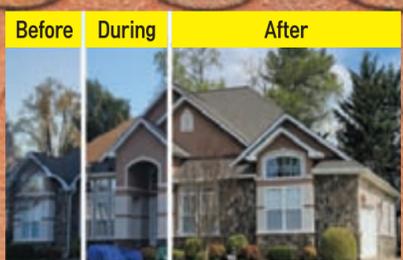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Roberta: It's so beautiful driving along this coast. This is new for me.
로버타: 이 해안을 따라서 운전하니 정말 아름답다. 난 이번이 처음이거든.
Roger: It isn't it? I love driving on this highway.
로저: 그렇지? 난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걸 정말 좋아해.
Roberta: Can we stop and get some lunch soon?
로버타: 우리 곧 멈추고 점심쯤 먹을 수 있을까?

Roger: Sure. There's a really good restaurant coming up.
로저: 물론이지. 곧 아주 맛있는 식당이 나와.
Roberta: How far away is San Francisco?
로버타: 샌프란시스코는 얼마나 더 멀지?
Roger: Oh we still have a ways to go. We have another one hundred miles.
로저: 아직도 멀었어. 100마일은 더 가야 돼.
Roberta: I'm glad I bought a new camera.

have a ways to go; 아직도 갈 길이 멀다
(Roberta visiting from New York and Roger are driving from Los Angeles to San Francisco...)
(뉴욕에서 방문중인 로버타와 로저가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운전중이다...)

로버타: 카메라를 새로 산 게 아주 다행이야.
Roger: You're going to use it a lot.
로저: 많이 쓰게 될 거야.
Roberta: I've never been to San Francisco before.
로버타: 난 샌프란시스코에 가본 적이 없어.
Roger: I think you'll really like it.
로저: 정말 좋아할 거야.

▶ (something) is coming up: ~가 곧 나온다
"Your birthday is coming up isn't it?"
(곧 생일이 다가오지 그렇지?)
▶ another (plus any number or amount): 추가로 ~만큼 ~만큼 더
"We have another ten minutes before the movie starts."
(영화가 시작하려면 10분은 더 있어야 합니다.)

기억할만한 표현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열쇠

(1)상처를 보호하거나 붕대 따위를 고정시키는 데에 쓰이는, 점착성 테이프 (3)별의 빛이나 위치, 운행 따위를 보고 개인과 국가의 길흉을 점치는 점술 (5)밤에 불을 밝혀 뱃길을 알려 주는 시설 (6)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 (8)키는 6미터 정도로 포유류 가운데 가장 크다 (9)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 부역이나 군역에 소집된 남자 (11)우리나라 최남단의 섬 (13)열 가운데 여덟이나 아홉 정도로 거의 대부분이거나 거의 틀림없음 (15)토끼 사냥이 끝나면 개를 삶아 먹음.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쓰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헌신짝 버리듯 함. □사□□ (17)순서나 차례에서, 일정한 사이를 거름. 사흘 ~로 술을 마시다 (19)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여자를 높여 이르는 말 (20)아무것도 먹지 않은 입 (22)살 빛이 희고 고결하여 신선과 같은 풍채. □골□□ (24)집에서 기르는 짐승 (25)관소리에서 고수가 흥을 돋우기 위하여 삽입하는 소리. 좋지, 열씨구 따위 (26)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

세로 열쇠

(1)밀가루 반죽이나 삶은 푸성귀 따위를 얇고 동글넓적하게 만든 조각 (2)뛰어난 견해나 생각 (3)끼니로 낮에 먹는 음식 (4)술에 취해 정신없이 하는 말이나 행동 (7)물결이 바위 따위에 부딪쳐 사방으로 흩어지는 잔물방울 (9)몸치장을 하는 데 쓰는 물건 (10)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소문 따위를 흥미 본위로 다룬 기사. 연예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 기사 (11)말을 기르는 곳 (12)갈참나무, 졸참나무, 물참나무, 떡갈나무의 열매. 목을 쭈어 먹는다 (14)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을 알선 소개하는 사람 (16)채로 쳐서 돌리는 장난감 (18)임진왜란 때 왜군을 무찌르는 데 크게 이바지한 세계 최초의 철갑선 (19)3년과 같이 길게 느껴짐. 몹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일감이 ~라 (21)무엇을 먹거나 마심으로써 입안을 개운하게 함 (22)옥으로 만든 국새 (23)처마 끝에 다는 작은 종.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며 소리난다

스도쿠

7								4
		8	3		2	1		
	2			4				7
	6							1
		2				8		
	7							4
	8			2				5
		3	6		5	2		
2								1

자료제공 = 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6	9	7	4	9	1	2	5
7	8	2	5	9	8	6	4	9
3	9	6	5	2	7	1	8	1
2	6	3	9	4	5	1	7	8
6	3	8	4	7	5	1	2	9
3	6	8	2	9	6	4	7	5
8	7	1	3	4	5	9	2	6
9	6	9	2	7	3	8	4	5
4	2	5	8	1	6	9	3	7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month year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일본식당 구인**
 *데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결/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하숙·렌트

고급 노인아파트(62세+)
 싱글 \$1,153, 1Br \$1,228
 2Br. \$1,471 A/C, 냉장고/냉비
 Income Limit (색선8)
 주소: 1221 W. 7th St.
 (213)623-2010 (영어로)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가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askusa@koreadaily.com로 메일 주세요.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용자 간단하고 빠른 용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용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용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레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달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루아 샵
 Up to 40% 할인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루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루로 뱀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외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평약 산삼음욕단 도인력사당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92CHICKENUSA.COM

92 Chicken KOREAN STYLE

치킨, 핫도그, 떡볶이, 소스, 장벼박스, 도매, 미국전지역

창업주 모집!!!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창업주를 모집합니다.

가맹비 없음!!!! 로열티 3년 없음!!!!

식당자리 구함 / 부동산 환영
 현 90개 매장 오픈 성황중!
 문의하시면 컨설팅 해드립니다.
 E2비자 가능합니다.

92 K-CORN DOG

문의: **770-769-7575**
 다양한 노하우로 성공을 만들어 드립니다.

미전역 좋은자리 찾습니다



[월드뱅크카드서비스]

WBS POS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www.worldbankcard.com

최신
POS 시스템

최저
가격 보장

- ◆ 간편하고 쉬운 POS
- ◆ 재고 관리 기능
- ◆ Warehouse와 Multi-Location 관리 가능
- ◆ 고객 멤버십과 기프트 카드 가능
- ◆ CUSTOMIZE 맞춤형 POS 가능

※ POS / ATM / 크레딧 카드 터미널 문의 환영(Apple Pay 됩니다.) 

WBS의 목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보다 높은 이익성과 안정적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맞춤서비스

동종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컬 담당자

고객님들의 요청에 언제나 응대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원

모든 고객분들을 위해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1-800-WBS(927)-5675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ww.worldbankcard.com

